

노동운동 사회주의 추종 안된다

大韓言論人會 '09주제 「언론과 國益」— 새 패러다임을 위한 제언

노동운동의 현황과 문제점

세계적인 장기 불황으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진 탓으로 올해의 임금교섭은 큰 충돌 없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내년 부터 시행 예정인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반대하는 노동계가 연말총파업을 추진하는 등 노동관련 제도를 둘러싼 노정간 갈등으로 동계투쟁이 걱정되는 상황을 맞았다. 대공황 이후 최대의 불황으로 평가되는 지금의 경제상황에서 양대 노총은 총파업을 거론하며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다.

한국의 노조 중앙조직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으로 나뉘어져 있다. 대기업과 공무원·교원들이 다수 가입되어 있는 민주노총이 강성 노동운동을 주도하고 있는데, 민주노총의 강령에서는 조직의 목적 중 상위 2개 항목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① 우리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참된 민주사회를 건설한다.

②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고 제민주세력과 연대를 강화하며, 민족의 자주성과 건강한 민족문화를 확립하고 민주적 제권리를 쟁취하며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한다.

여기서 보듯이 민주노총은 노동자 정치세력화, 통일과 '민족 자주성' 같은 민족문제와 남북문제 등 정치사회적 문제 해결에 조직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표방하고 있으므로 최근까지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반대, 한미 쇄고기수입협정 반대 등을 관철한다는 명목으로 총파업을 시도하는 등 정치적인 활동에 치중해왔다.

상대적으로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 증진이란 온건한 노선을 견지하며 여당과 정책적 연대를 유지하면서 대기업의 임금인상 자제와 여당이 추진하는 '경제살리기'에 동참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힌 한국노총도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의 허용 정책을 내년부터 시행하려는 정부 정책에 저항하여 지난 15일에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을 결의하고, 뒤이어 민주노총과 이를 저지하는 연대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회사가 지급하는 관행은 '노동의 대가로서의 임금'이

란 시장경제의 대원칙에 어긋나며, 노조의 자주성을 파괴하여 노조를 '어용적'인 것으로 타락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노조 스스로 부끄럽게 여겨야 할 관행이다. 복수노조 허용은 개별 근로자의 단결권(가입할 노조의 선택) 보장이란 원칙을

특별기고



박덕제

방송통신대학 경제학과 교수

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므로 국제적 기준에 어긋나고 장기적으로 노동자의 복지증진에도 방해가 된다.

전평의 영향

노조의 정치적 운동은 자본주의 초기에 일반 서민에게는 정치적 자유가 제한되던 시기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활동이었다. 영국의 경우

의 관계를 정립하였다.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의 의사결정에 30%의 지분을 행사하고 있으며, 한국노총은 과거 민주사회당을 만들어 17대 총선에 후보를 낸 적이 있다. 이처럼 한국의 노동조합이 정치적 운동에 역점을 두고 있는 배경에는 해방 후 처음 조직된 노조였던 전평(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이 남로당과의 강한 연계(실제로는 그 산하조직) 하에 신탁통치반대운동이나 미군정 반대운동 등 남로당 주치의 정치집회에 군중동원 일을 주된 활동으로 했던 역사에 대한 향수와 이러한 활동을 이상으로 여기는 퇴행적 사고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전평에 대한 향수와 전평이 했던 활동을 이상시하는 의식은 현재 양대 노총이 역점을 두고 있는 산업별노조의 건설로도 나타나고 있다. 당시 전평은 국제공산당의 기본 원칙에 따라 각 국가에 하나의 전국조직, 그 산하에 산업별 단위노조란 원칙으로 조직한 바 있는데, 산업과 노동시장의 상황이 60년 이전과는 전혀 달라진 오늘날에도 복고적 사고에 젖어 이를 실현하고자 함으로써 한국의 노사관계를 불안정하게 하고 노사 간의 거래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사상 또한 남조선노동당의 이념인 사회주의에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이는 노조의 강성 투쟁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 한국 노조의 이러한 특성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공산당의 한 간부가 지적한 말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한국의 노사관계와 관련하여 "한국인들은 자기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결과의 평등만 너무 따진다. 노사 갈등이 심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중앙일보, 2004. 11. 12)

정치와 이념지향적 운동의 영향

이처럼 정치적 목적의 분류가 자주 일어나므로 사업장의 사향과 무관한 문제로 분류가 발생하며, 그 분류로 인한 피해가 크고, 분류의 양상 또한 '죽도록 파업한다'고 외국 언론에서 표현할 만큼 교섭의 타결을 위한 한 과정이 아니라 죽기살기로 진행되는 것이 다반사이다. 그러다 보니 한국을 잘 아는 경쟁국가의 외국인들마저도 '왜 매년 이렇게 요란스럽게 시위나 파업이 일어나는 것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할 정도이다.

光復후 全評활동 향수로 퇴행적 思考 政治목적 분류·군중동원 그만 뒤야

실현하는 것으로 한국이 OECD에 가입할 당시 개정을 약속했던 조항이다.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을 제한하던 이전의 한국 노동법 규정도 OECD와의 약속 때문에 개정한 바 있는데, 노동 측에 도움 되는 이러한 규정 개정은 국제적 기준을 근거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노동계가 지금은 반대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하나의 노조만 허용되면 기득권을 가지는 기존 노조에게는 좋겠지만 근로자는 선택의 자유가 없다. 이는 독점기업이 있을 때의 소비자나 일당 독재가 있을 때 유권자의 자유가 사라지

노동조합의 이러한 활동은 서민에 대한 투표권 부여 등 노동자들의 정치적 자유를 신장시키는 데 기여했으며, 노동당을 결성하는 모태로 노조가 역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당결성의 자유와 모든 성인에게 보통선거권이 부여되는 오늘에 와서는 노조는 사업장에서의 노동자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에 치중하며 정치 영역에서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활동은 노동당이나 사회민주당과 같은 정당이 수행하는 것으로 역할이 구분되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당과 노조는 공식적으로 독립적인 기관

大韓言論人會 회장 입후보 등록 공고

大韓言論人會 제 17대 회장 입후보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공고는 '회장은 정기총회 2개월 전에 선거에 관한 일정과 후보등록 절차를 본회 회보(대한언론)에 공고 한다'는 본회 임원선임에 관한 규정 제2장 2조 선거공고 및 후보 등록 ①항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입후보 할 회우는 본회 정관 제13조 ①항 및 임원 선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회원 30인의 추천을 받아 본회 사무국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마감 : 2009년 12월 11일(금) 오후 5시까지

• 등록서류 : ① 추천서 1통 (소정양식)
② 등록서 1통 (소정양식)
③ 이력서 1통 (명함판 사진 1장)

2009년 11월 1일

사단법인 大韓言論人會 회장 조창화

勞使 ‘악순환 시계추’ 멈추는 지혜를

大韓言論人會 '09주제 「언론과 國益」— 새 패러다임을 위한 제언

駐韓외국인이 보는 시각

신문이라는 것은 독자가 신문을 들고 읽었을 때, 조금이라도 「허허~」라는 놀라움이 없다면, 그것은 그다지 좋은 기사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기사를 보고, 「아, 또야」하고 생각할 만한 기사는 크게 다루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의 격심한 노사분쟁은 적어도 일본 미디어에서는 최근 들어 그다지 크게 부각시키지 않게 되었다.

결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노사 쌍방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웃나라, 한국에서는 심한 노사대립이 자주 일어난다」고 일본인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 또한 확실하지 않을까 한다. 서울에 주재하고 있는 이른바 외신기자 입장에서 볼 때, 이 문제는 오히려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뿌리 깊은 문제이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어떤 외신매체도 그저 정부와 노사 당사자 주장만으로 원고를 작성하는 것에 큰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깊은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사화되는 기회가 적지 않을까 싶다.

격심한 노사대립은 일찍이 일본에서도 다반사였다. 그 중에서 유명한 사건은, 에너지 전환을 즈음해서 발생한 탄광 노사분쟁이다. 규슈(九州)에 있는 미이케(三池)탄광의 대립은 「총자본(總資本)」대「총노동(總勞動)」으로 번졌기 때문에, 단지 탄광노동자조합 뿐만 아니라 민간의 다른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나 교사, 공무원과 같은 공적 조직의 조합원들까지 전국적으로 가세했다. 그 탄광이 폐광할 때 나는 현장 취재팀의 한사람으로서, 또 하나의 「쇼와(昭和)」시대가 지고 있는 것을 직접 보았다.

소위 탄주(炭住)라고도 불리는 탄광 주택은, 하나의 큰 지분을 공유해 그 밑에서 개인주택이 연립하는 나가야(長屋)형식이었다. 그곳에서 한집 두집 차례차례 가족들이 집을 싸서 나가기 시작했다. 폐광 무렵에는 심한 대립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모든 분쟁에 있어, 폭력적인 압력이나 저항을 인정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 그것을 부정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각각의 사회에서 민주화를 위해 투쟁했던 사람, 민주화를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말로 폭력의 사용을 가장 강하게 거부해야만 한다.

폐광 직전의 현장에 서서,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나의 뇌리 속을 스쳐간 것은, 어린 시절의 나날들이었다. 내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각 가정에서

폭력적 압력-저항 모두 민주주의 부정 외국 투자 호소하며 과격분쟁은 모순

겨울에는 일반적으로 연탄이나 조개탄을 사용했다. 어렸을 때, 이 새까맣고 검붉은 숯덩어리가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온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곳에 와서야 땅 속 저 깊은 어둠에 들어가 몸 전체를 새까맣게 하면서 탄을 쪼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동시에, 나라의 방침에 휘둘러 사는 최전선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피와 땀이, 패전 후 황무지와 닮아 없었던 일본을 고도성장으로 이끌어 갔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했다.

이제 일본에서는, 「한국형」 노사분쟁은 거의 볼 수가 없다.

그 원인 중의 하나는 나라 전체가 풍요로워진 점을 들 수 있겠다. 경제 성장기에는 모든 직장이 일손부족에 시달렸으며, 만든 제품은 바로바로 팔려 나갔

특별기고



箱田 哲也

朝日新聞 서울 지국장

다. 이제 일본은 써버리기만 했던 환경과 자연을 되찾으려 애쓰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생각대로 쉽지 않은 않다. 우리는 이제 당시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단지 일본은 그동안 나라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을 격상시켰다.

이점에서는 한국도 충분히 경제 성장을 이룩했다. 더구나 국민들의 노력이 한국으로 하여금 전세계적으로도 전례를 볼 수 없는 속도로 경제성장을 가능케 했다. 국민소득도 늘어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도 가입했다.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눈

부신 회복세를 보인 것 역시 한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이 안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은 확실히 이 사회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듯하다. 일본도 고이즈미 정권 이후부터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를 전환점으로 양극화가 한층 더 심화되지 않았나 싶다. 나의 눈에는 외환위기(IMF)이후 노상에서 생활하는 노숙자들의 수가 확연하게 늘어난 것 같이 보인다.

더불어 나는 이 사회의 「불투명성」 또한 국민들이 불만을 품게 하는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지금은 비단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전체적인 파이가 제한된 상황에서 「그럼 우리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조직 전체 혹은 국민 전체가 깊이 생각해야 할 시대가 도래되

었다. 그렇다면, 그것을 설득할 수 있는 그대로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TV화면에 비춰지는 격심한 노사분쟁을 볼 때마다, 나는 힘으로 억누르는 것으로 증오의 사슬을 끊을 수는 없을 듯이 보인다. 특히 한국사회에는 노사문제 뿐만 아니라, 지역이나 이념을 둘러싼 갈등들이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립하는 쌍방이 지향해야 할 이미지(미래상)를 서로가 공유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지에 달려 있지 않을까.

한국은 일본보다 많은 FTA체결에 나서고 있다. 보수, 진보를 불문하고 각 시대의 정권은 줄곧 외국자본에게 한국에 대한 투자를 호소해 왔다. 그러나 한편으로 국내의 과격한 노사대립이 일본을 비롯한 외국자본의 진입을 가로막는 한 원인이 된 것도 사실이다. 얼핏 보기에도 모순처럼 보이는 이 구도를, 국민 한사람 한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일본에서도 노사문제는 늘 경영자 측의 힘이 강하면 노동자의 권리를 위협하게 되고, 반대로 노동자가 힘을 갖게 되면 필요 이상의 요구까지 파고 드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악순환의 시계추를 방관하는 것만으로도 그 지혜를 모았다고는 할 수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어떠한 사회를 바라고 있는가. 기본적으로 입을 다물고 침묵을 지키는 일본인은, 올해 8월 치러진 총선거에서 확실한 의사표시를 하였다. 민주당 중심의 연립여당은 「콘크리트에서 사람으로」를 정치 슬로건의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다. 그 실천으로 여당은 공공사업 등을 가능한한 줄이고, 교육이나 복지에 역점을 두어 세금을 배분하겠다고 국민들에게 호소한 바 있다.

새 정부가 일본을 원활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지의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새 정부 출범으로 나라의 미래상을 그렸다는 것에는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4]

1면에서 이어집니다.

이러한 강성 운동이 일상화하면서 한국 노사관계에 대한 국제적 평가는 지극히 낮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를 보면, 한국의 노사관계 경쟁력은 거의 매년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불안정한 노사관계는 국내 기업의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가로막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운동에 대하여 노조 내부에서도 반발이 일어나고 조직을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치적 운동에 치중하면 당연히 온갖 정치사회적 쟁점

에 관해서 발언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정부와 충돌하는 일이 잦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충돌을 대규모 군중운동으로 돌파하려다 보니 산하 조합에 조합원 동원을 요구해왔고, 여기서 일반 기업의 노조와 마찰을 빚어왔기 때문이다. 세계적 불황의 장기화로 소득의 감소와 고용불안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일선 조합원의 욕구와 정치적 운동이나 노조의 기득권에 집착하는 양대 노총 본부의 마찰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근래에 나타나고 있는 일부 사업장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나 어느 노총에도 가입하지 않는 독립노조의 증가가 이를 반영하고 있다.

정치적 운동에 치중하는 노조의 활동

은 국민여론과 언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한국노동연구원이 실시한 노사관계 국민의식조사를 보면, 단체교섭에서 제시하는 노조의 요구에 대한 일반 국민의 평가는 과도 또는 매우 과도하다고 부정적으로 보는 평가가 2007년에 57%에 달하고 있으며, 유사한 대상에 대한 1989년 조사 결과에 비하면 부정적 평가가 25%포인트 상승하고 있다. 또한 1989년에는 노조가 사회 민주화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평가한 응답이 과반수인 62%에 달하였으나 2007년에는 35%로 감소하였고,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은 11%에서 25%로 2배가 넘게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평가가 증가함에 따라 좌파 성향 정당의 지지도도 낮아졌다. 민주노동당은 17대 총선에서 10명의 의원을 당선시켰으나 18대 의원선거에서는 총 5석을 획득하는데 그쳤다.

지금 한국은 장기화 하는 세계적 불황으로 다수의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 각자가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 시기에 이미 용도 폐기된 이념인 사회주의를 추종하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노동계의 강성 운동의 여파가 경제회복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없도록 언론계 종사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계도 역할이 요구된다. [4]

勞組전임자 無賃金 관철 돼야 한다

大韓言論人會 '09주제 「언론과 國益」— 새 패러다임을 위한 제언

복수노조 허용,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가 2010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는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정부도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를 원칙적으로 시행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노조전임자 급여지급과 관련한 그 동안의 폐해는 심각한 상황이었으며 후진적 노사관계의 주범이었다. 이런 점에서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가 선진적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이 기대된다.

반면에 복수노조 시행이 임박할수록 산업현장의 걱정은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직까지 복수노조 시행의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았다. 오로지 국제사회에서의 명분을 중시하며 13년간 유예되었던 복수노조 문제를 금번에는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문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복수노조 시행 문제는 산업 현장의 실상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는 그 동안의 경험으로 폐해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어 준비보다는 의지가 필요한 문제다. 반면에 복수노조는 시행으로 인한 혼란이 예상되므로 시행의 의지보다는 시행전 준비가 최우선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우리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의 차질없는 시행 필요성, 정상적인 정착을 위해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복수노조 시행과 관련한 준비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 이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는 그 동안 노조전임자 급여를 사측이 지급하며 발생하는 다양한 폐해를 충분히 경험했다. 국제사회에서는 유사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측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관행으로 인해 노조전임자 수는 생산에 차질을 줄 정도로 과도하게 증가되었다.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조전임자 수는 매년 증가하여 149명 조합원 중 1명꼴로 노조전임자가 인정되고 있다. 일본의 500~600명 중 1명, 미국의 800~1,000명 중 1명, 1,500명 중 1명 인정되는 유럽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노조는 단체교섭에서 매년 노조전임자 수 확대를 요구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과 파업을 전개한다.

또한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은 전임자 지위의 특권화 및 권력화를 야기했다. 회사로부터 급여만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각종 수당까지 지급되어 근로를 제공하던 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심지어는 접대비에 차량 및 기사까지 제공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다 보니 노조전임자 지위 확보가 노동운동의 목표가 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

생하기도 한다. 일부 대형노조에서 발생하는 조합비 유용, 공금횡령 등 노조 내부 비리 및 노조 간 부패도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으로 인한 권력화, 특권화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이들은 비합리적인 투쟁과 파업을 주도하는 세력이 되어 현장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부추기는 한편 다른 회사 분규나 상급단체 정치집회에 참여하며 전체적으로 노사관계 악화를 주도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와 같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문제는 수십년간 그 폐해를 경험한 것으로

특별기고



김 영 배

한국경영자 총협회 상근부회장

된다. 그 밖에도 유급 활동시간 보장 요구 등 노조의 편법적인 행동들도 예상되므로 이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규정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현재 노사관계를 평가하는 여러 지표들이 우리 노사관계가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매년 외국의 저명한 연구기관에서 발표하는 노사관계 경

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최하위를 못 면하고 있고 외투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주요 원인으로 강성 노동운동을 일순위로 지적하고 있다. 현장 노무관리 담당자들은 강성노동운동으로 인한 현

R&D 인력 등 핵심 분야에서의 노조 결성 및 파업은 핵심 업무의 중단을 가져올 것이다. 핵심 업무는 일시적으로 중단되더라도 그 폐해가 즉시 발생하여 기업 경쟁력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심각한 파장을 초래한다. 그 밖에 노노갈등 발생, 노사관계 비용 상승, 노사갈등 상시화 등 다양한 폐해가 예상된다.

복수노조 시행으로 인한 노사관계 혼란에 대한 현장에서의 두려움은 상당하다. 기업들은 노무관리시스템이 오랜 기간 단일노조 대응에 맞추어 왔고 복수노조 노무관리는 경험이 전무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진행하여야 할 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복수노조의 인정은 새로운 유형의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현장 노사 갈등을 전면적으로 확대, 심화시켜 기업의 생산성 저하 및 경쟁력 악화를 초래한다.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라도 우리 현실에 맞지 않고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하지 않는다면 독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한 복수노조 시행에 대해 어떠한 사회적 기반이나 안전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도 무조건적 시행만을 고수하고 있다.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폐해방지 혼란 최소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 먼저 합리적 교섭창구단일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합리적 교섭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수대표제가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단협 유효기간의 합리적 조정, 대체근로 제한 폐지,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등의 조치도 수반되어야 한다.

복수노조 시행은 우리 노사관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제도인 반면에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는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복수노조 시행에만 집착해서는 안 되며 현장의 노사관계에 미칠 파장과 노동운동의 현실을 고려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 점은 노조도 반대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본다. 반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것인 만큼 차질없이 시행해야 한다. [4]

국제사회 유례없는 관행 생산에 차질 복수 노조는 제도적 보완거처 시행을

이번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숙제다.

노동계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하는 것이 노동조합을 말살시키는 것이라며 급여지급 금지 입법화를 강력히 반대하고 양 노총 연대투쟁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는 현장 노사관계의 원칙을 확립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핵심 과제이다.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가 법으로 명문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이를 지키려는 기업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법 제도라도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면 제도 시행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특히 현장에서 기업들이 노조의 협박에 밀리고 급여지급 금지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두려워해 급여를 지급할 경우 노조전임자의 폐해를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제도의 정상적인 정착에 의한 노사관계 선진화의 키는 이를 지키려는 기업의 의지다. 기업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를 지키지 않는 한 노사관계 선진화는 달성하기 어렵다.

정부도 일정한 조치를 취하여 기업들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의지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정부 주도로 제도 시행과 관련해 노사설명회를 개최하고 공식적인 지침을 발표해 노조전임자 급여는 반드시 금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현행법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도 검토할 사항이다. 무엇보다도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이나 요구가 있을 경우 노조를 처벌하는 벌칙조항을 규정하거나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를 명문화하는 것이 확실한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

장의 폐해와 사업장 내 강성세력 침투를 두려워하고 노무관리의 어려움을 심각하게 호소한다.

복수노조 시행은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합리적 노사관행이 정착된 나라에서도 상당한 폐해가 예상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같이 후진적 노사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산업현장의 혼란과 폐해는 불가피하다. 일부에서는 복수노조의 시행을 적절히 활용할 경우 노조 간 경쟁을 유발하여 현 노사관계 악화의 주원인인 강성노조 세력을 약화시키는데 유용한 처방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지금의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실에서 복수노조는 노조간 투쟁 경쟁을 심화시키고 특히 잠잠해져가는 이념 투쟁을 재점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복수노조의 시행은 사업장 내 노조 수를 급속히 증가시킬 것이다. 이는 강성 노동운동 세력의 온건노조 사업장 및 무노조 사업장의 세 확산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사무관리직,

大韓言論人會 2009 송년의 밤 개최

12월 16일 프레스센터서

대한언론인회는 2009년을 보내는 “송년의 밤”을 12월 16일(수) 오후 6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갖는다.

이날 송년의 밤에는 연례행사인 “대한언론상” 시상식과 70세를 맞는 회우들의 고희연(古稀宴)이 함께 치러진다. 올 만 70세를 맞는 49명의

1939년생 회우들에게는 여주가마에서 별도로 구워 낸 특제 기념 접시와 고희 축수금(祝壽金) 20만원씩이 증정된다. 이 기념접시에는 서예가 南德韓碩奉 선생의 휘호 “言論一路”가 새겨지고 고희 회우의 각자 이름을 南德 선생이 일일이 썼다. 또 송년회에 참석하는 전 회우에게는 5만원 상당의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 [4]

연합사 해체되면 韓美동맹 무너진다

한·미 연합사 해체가 앞으로 대략 2년 반이 남았다. 반대 여론이 하도 거세니까 '621조의 막대한 국방비로 국방력을 키우겠다, 해체해도 4가지 기본조건 하에 할 것이다' 등등의 많은 약속들이 있었지만, 막대한 국방비 투자는 일찌감치 무산되었고 4가지 기본조건이라는 것도 그저 정치적 수사(修辭)일뿐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그럼에도 연합사해체 작업은 하나 둘 착실하게 진행되어 왔다. 북한이 아무리 핵과 미사일을 휘둘러 대도 마찬가지였고, 긴장이 특별히 높았던 금년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도 재검토는 운(韻)조차 폐지 못했다. 그러지 않아도 미래가 없는 조직은 투자도 안 되고 인재도 모이지 않는 죽은 조직이 되기 십상인데, 이대로라면 2년 반이 다 가기도 전에 연합사는 일찌감치 허울만 남게 되고 말 것이다. 자연히 걱정거리가 하나 둘이 아니다.

‘한·미 연합사’ 해체의 숨意

당장 연합사가 없어져도 한·미동맹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들 하지만 오히려 동맹이 칼잡이라면 연합사가 그 칼날이요, 연합사 없는 한·미동맹은 한장의 종이쪽지에 불과 할 수가 있다. 한국이 연합사 해체를 거론하자 전(前) 미국 NSC 보좌관 마이클 그린은 즉각 “동맹이란 깨질 수 없는 게 아니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사실 연합사가 해체되고 나면 양국을 연결해 오던 핵심 연결고리가 끊어지는데 동맹이 어떻게 그대로일 수가 있을 것인가?

무엇보다도 연합사라는 존재는 튼튼한 한·미 군사동맹과 그 동맹이 세계 최강 미국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음을 가장 분명하게 증명하는 현실체다. 그 상징성이 지난 수 십 년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한강의 기적을 뒷받침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지금도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핵심체다.

억제란 본래 심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아무리 막대한 예산을 퍼부어 국방력을 강화한다고 해도 오늘 연합사의 억제력을 대체 하기란 쉽지가 않고 북한의 핵 같은 대량살상무기들까지 고려하면 아예 불가능 할 것이다. 그럼에도 ‘연합사 해체해도 핵우산은 보장해준다’고 하지만, 실은 연합사가 서울에 존재하는 그자체가 가장 확실한 핵우산이요, 연합사가 해체되면 이미 크게 훼손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핵우산 효과인 것이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더욱 큰 문제다. 장차 한반도 통일과정에서는 엄청난 정치, 경제, 군사적 소요가 발생할 것인데 그 소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고 연합사는 그 양호한 통로이자 관리기구이기 때문이다. 또 통일 후에도 팽창주의적 중화사

상을 견제 하는 데는 연합사만큼 효용성이 높은 기구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만약 세계사의 흐름이 오늘 같이 지속된다면 북한이 중국의 배타적 영향력 하에 드는 것은 시간문제가 될 것이다. 그럴 경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연합사로 연결된 오늘날의 한·미동맹체제를 튼튼히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대비책이 있을 것인가?

이렇게「연합사로 연결된 한·미 군사동맹체제」는 지난 수 십 년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한강의 기적을 뒷받침 해 왔고, 지금도 한국의 핵심적 억제력이요 가장 값싸고 효용성이 높은

특별기고



김희상

예비역 육군중장·정치학박사
한국 안보문제 연구소 이사장

무엇보다도 연합사라는 한국의 가장 강력한 억제력을 상실해서 자칫 정말로 북한의 오판을 불러오거나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높게 될 것이다. 특히 유사시 미국군의 실질적 자동개입 장치가 제거 될 테니 북한은 더욱 더 기습도발의 유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일찍부터 “연합사 해체가 결

제공 ②재래식 전력 지원 ③MD 역량 지원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로 아닌가 싶다.

사실 당장 이제 연합사가 해체되어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책임이 달라지면 한·미 방위조약이 갖는 군사적 영향력 자체가 달라질 것이니 ‘한·미 방위조약의 지속’이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을 것인가?

核우산 보장 등 4개 기본조건 實效 의문 한국군 국제임무 부각해 합의수정 필요

국방체제인 동시에, 앞으로도 상당기간 함부로 대체할 수가 없는 필수적 국가 안전장치인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 우리 젊은 간부들이 한국군의 작전 역량이 높아져서 해체해도 괜찮다는 동 철딱서니 없는 말을 한다지만 ‘연합사 해체’는 이처럼 우리의 작전적 역량 제고로 극복할 수가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전략적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연합사 해체가 자칫 한·미동맹 자체를 부서져 내리게 하고 한국 안보태세의 기축을 흔들게 되지 않을지, 장차 한반도 자유통일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자유대만이 살아남기도 어려운 함정을 우리 스스로가 파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별 별 걱정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연합사 해체가 초래할 문제점들

또 그래서 ‘연합사 해체’가 좌파정권의 주한미군 철수와 한국 안보태세 허물기라는 전문가도 적지 않았다. 그러고 보니 ①한·미 방위조약의 지속 ②주한미군의 계속 주둔과 미증원군 전개 보장 ③정보자산 등 한국 측 부족전력의 지속 지원 ④연합대비태세 및 전쟁 억제력의 계속 유지 등 이른바 ‘해체의 4가지 기본조건’이 모두 얼마나 진지한 약속이고 얼마나 실질적 의미가 있는지 그것부터가 의문스럽다. 따지고 보면 이번 SCM에서 미국이 약속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위한 ①핵우산

국은 미군이 한반도에서 발을 뺄 수밖에 없게 할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들이 하나 둘이 아니었듯이 논란이 많은 주한미군 추가 감축도 불가피해질 것이다. 평택에 좋은 전용 기지를 만들어 준다고 해결 될 일도 아니다.

병력부족으로 항상 골머리를 앓는 미국이 2만 8천의 건강한 병력을 일없이 내버려 두기도 쉽지 않은 일일뿐만 아니라, 이곳이 자칫 좌익 운동권의 ‘반미시위의 성지(聖地)’가 되어 주한미군의 장기주둔은커녕 오히려 조기 전면철수를 재촉하게 만들지도 모르는 일이다.

미 증원군 전개 보장 약속도 의문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미국이 증원하고 싶어도 복잡한 의사결정과정과 파병 준비과정을 거치다 보면 적시(適時)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아무리 약속을 하고 다짐을 해도 당장이 아니라는 것이지 내일은 나갈 수밖에 없고 올 수가 없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보다 실질적인 문제들을 지적하는 군사 전문가들도 많다. ‘한국 측 부족전력을 지속 지원’하겠다는 다짐을 수없이 하고 있지만 연합사 실무자들이 실재 느끼는 온도는 많이 다르다고 한다.

금번 SCM에서도 ‘MD 역량 지원’을 강조 했지만 남과 북이 거의 맞붙어 있는 한국 방위태세의 현실에서 그것이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전시에 작통권을 한국 합참과 주한미군 사령부가

나누어 갖게 된다는 점이다.

그것은 이미 연합방위가 아니라 공동방위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특히 그렇게 작전지휘체제를 2원화해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은 병가(兵家)의 상식이기 때문이다.

연합사 해체가 갖는 독특한 정치심리적 차원에서의 문제점도 만만치 않다. 북한과 친북좌익세력들은 진작부터 한·미동맹이 존재하는 한 적화통일이 어렵다고 보고 한·미동맹의 파괴, 특히 한·미 연합사의 해체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

그런 그들에게 연합사 해체는 그들의 궁극적 승리를 예언하는 신탁(神託)과도 같을 것이다. 연합사 해체가 핵과 함께 북한 ‘간접침략(間接侵略)’의 위협을 높이고 그 효과를 극대화 시켜 줄 것이라는 뜻이다.

해체 시기도 부적절하다는 것이 보편적 시각이다. 물론 한·미동맹이든 연합사 체제든 그 어떤 것도 영구불변일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연합사 체제는 먼저 한국군이 충분한 군사적 역량을 갖춘 후에 해도 늦지 않고, 설사 역량을 갖추었더라도 한국이 한반도를 통일하고 중국이 민주화 되는 등 주변정세가 안정될 때까지는 서둘러서 않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일 것이다.

특히 북한 핵 위협이 직접 우리 머리위를 덮쳐 오고 육일승천하는 중국도 우리를 넘보고 있는 지금은 오히려 더욱 더 단순한 종이위의 동맹이 아닌 연합사로 연결된 오늘의 구조적 한·미 군사동맹체제가 특별히 소중 할 때다. 하필 이런 때에 연합사를 해체해서 미래를 스스로 위태롭게 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이겠는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 보면 불수록 연합사 해체 문제는 서둘러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국가간의 합의사항이라 되돌릴 수 없다면서 지금도 참여정부가 깔아놓은 해체 궤도를 따라 그대로 질주하고 있다. 자칫 한계를 넘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러울 정도다.

물론 미 의회의 태도는 제법 강경한데다 펜타곤에서도 ‘해체해서 나쁠 것이 없고, 한·미간 현안문제 해결에도 유리 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니 재검토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미국의 예비역 군 원로들과, 고위 담당자 및 전문가들 중에는 우려와 함께 재검토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연합사 해체’가 아직은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는 예일대 폴 케네디 교수나 특히 항상 ‘재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마이클 그린과 ‘어떻게 접근 하느냐가

南-北 관계 頂上회담 집착 말아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8월 김정일 북한 국 방위원장의 정상회담 제의를 받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서게 되었다. 김정일의 기만적인 정상회담 회 유에 말려들어 친북좌익 정권의 10년 실책을 되풀이 하느냐, 아니면 대북 제재를 바짝 조여가며 김정일의 고약한 버릇을 고쳐 남북관계를 올바른 길로 관리하느냐의 선택을 남겨두고 있다. 염려스럽게도 이 대통령은 김정일의 꾀 바른 정상회담 미끼에 흔들리는게 아닌 가 걱정된다.

이 대통령은 10월25일 북한이 핵과 관련해 “대화 복귀 의사를 표명”하지만 “아직 의도가 불투명하고 핵을 포기하 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는 징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경계했다. 그는 이어 “국 제사회는...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1874호의 엄격한 이행 등 단합된 태도를 유지해 북한이 진정한 대화의 길로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지속 적인 대북 압박을 주문하였다. 매우 옳 은 말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자신의 말과는 달리 정부 관계기관을 통해서 “1874호의 엄격한 이행” 보다는 유화책 으로 나서게 한다는데서 우려를 금치못하게 한다.

김정일은 8월23일 김대 중 전 대통령의 장례 특사 조문단을 서울로 보내 이 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 을 제의하였다. “남북관계 가 진전되면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고 전제조건을 붙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김정일이 남북정상회담을 먼저 제안했다는 점이고 “남북관계가 진전되면”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는 사실이다. 김정일은 그동안 남쪽에서 애걸하며 돈을 먼저 보내주기 전에는 정상회담에 응해주지 않았다. 김대중 대통령은 5억달러를 찢 러주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심수조원에 달하는 대북 경제지원을 약속해주었다.

그러나 김정일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는 먼저 정상회담부터 제안하고 나섰다. 돈 대신 노리는 것이 있음에 틀림없 다. 김정일이 확책하는 것은 뻔하다. 미 국의 버락 오바마 새 정부가 예상과는 달리 김정일의 의도대로 끌려오지 않자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미국을 끌어낼 수 있는 길을 닦기 위한다. 그밖에도 김정일은 남한과 미국에 동시 접근함으 로써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경쟁적으로 다가서도록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도 함 께 하고 있다.

앞으로 관심은 김정일이 내건 “남 북관계가 진전되면”이란 전제조건 을 이 대통령이 어 떻게 받아들이느냐 에 있다. 김정일의 정상회담 전제조건 은 짐작키 어렵지 않다. 남한이 대북 경제지원을 재개해 야 하고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에 의한 대 북 제재와 압박을 완화시킬 것을 전 제로 할 것 같다.

한·미공조를 해체하고 북한과 “민족공 조”로 나와야 한다는 것도 요구할듯 싶다. 북핵 문제는 미·북간의 협상 대상 이므로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입도 병곳 말라고 압박할 것도 짐작키 어렵지 않 다. 그리고 남한은 북핵이 “방어용”이므 로 불안해하지 말고 기정 사실로 묵인 해주는 것이 “남북관계 진전”에 도움이

특별기고



정용석

· 단국대 명예교수
· 전 남북 적십자회담 대표

되었던 대북 식 량지원을 “소규모”로 재개할 수 있다고 10월12일 선언하였다. 10 월18일에는 20억 원을 들여 남북 경의선과 동해선 군통신선로를 개 선하는 공사를 하기로 합의하였 다. 10월22일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중단시켰던 북한 산 모래 반입을 검토하겠다고 했

다. 연간 3600여만달러의 막대한 모래 반입 대금을 다시 지불하겠다는 것이 다. 10월26일엔 40억원에 달하는 옥수 수 1만t과 분유 20만t 지원을 공손히 제 안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징 후”를 보이지 않는다며 대북 제재를 “엄격히” 밀어붙여야 한다고 성토했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폐기된 것이 확 실해진 후 생각할 대상으로 미뤄야 한 다. 물론 이 대통령은 김정일과 만나야 핵을 풀수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 러나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구실을 내 세우고 김정일과 만났지만 핵 폐기에 대해선 말도 못하고 심수조원의 경제지 원만 약속하고 돌아왔음을 상기해야 한 다.

셋째,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나설 경우 막연히 “한반도 평화정착 회담”이 아니라 꼭 떨어지게 “북핵 폐기 회담”임을 전제조건으로 달아야 한다. “북핵 폐기”가 전제되지 않는 막연한 “한반도 평화정착 회담”은 북한의 핵보유를 기 정 사실로 인정해주는 축하연에 불과하 다.

넷째,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던 것 처럼 김정일에게 퍼주며 비위맞춰주 어서는 안된다. 이 대통령은 정부 관련 기관들이 9월부터 시작한 대북 퍼주기 와 김정일 비위맞추기를 중단토록 해야 한다. 인류 역사상 협상에서 상대방에 게 퍼주며 비위맞춰주고 평화를 얻은 사례는 하나도 없고 오직 재앙만 자초했다는 사실 을 잊어서는 안된다.

다섯째, 이 대통령은 정 상회담에 들어간다고 해도 북핵 폐기가 보장될 때 까지 대북 경제 외교 군 사적 제재를 중단치 말고 바짝 조여가야 한다. “핵 을 포기해야 준다”는 자신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 대통령이 앞의 다섯 가지를 지켜 간다면 북핵을 폐기시키고 친북좌익 정 권에 의해 10년간 잘못 길들여진 김정 일의 나쁜 버릇을 고쳐 남북관계를 올 바른 길로 주도해갈 수 있다. 그렇지만 정상회담 유혹에 빠져 김정일에게 퍼주 며 비위맞춰준다면 국가적 재앙을 부를 수 있다.

뿐만아니라 이 대통령이 김정일의 정 상회담 미끼에 놀아난다면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아 내치(內治)에도 신뢰를 잃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씨는 김정일의 정상회담 제의를 계기로 대통 령으로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기 로에 서게 되었다. 그는 김정일의 사술 (詐術)에 가득찬 정상회담 유혹에서 벗 어나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필자]

金正日 제안 의도부터 확실히 파악해야 成事대도 ‘核폐기 회담’ 전제조건 제시를

된다고 때를 쓸 것도 예상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부터 올 8·15 경축사에 이르기까지 18개월간 무려 다섯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을 반복 해서 김정일에게 구걸하다시피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의 정상회담 간청을 상기 시키기에 족하다. 김정일은 정상회담을 거둬 제안하는 이 대통령에게 회담 미 끼를 던지면 어떤 전제조건이든 받아들 일 것으로 계산한듯 싶다.

김정일이 기대한대로 이 대통령은 김 정일의 정상회담 회유에 흔들리는게 아 닌가 의심케할만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대북자세가 갑자기 9월부 터 물렁물렁해지기 시작했다는데서 그 려다.

홍양호 통일부차관은 김정일이 정상 회담 미끼를 던진지 한달만인 9월29일 중단된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의도를 감 자기 내비쳤다. 그는 북한 핵과 “금강산 관광은 연계하지 않는다”고 공언하였는 데서 그렇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중단

지만, 정부 관계기관들은 대북 퍼주기 와 비위맞추기에 나서고 있다. 말과 행 동이 다른 이중 플레이가 아닌가 우려 되며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 제재를 형클어놓는게 아닌가 걱정된다. 여기에 올바른 남북관계를 위해 이 대통령이 지켜야 할 대목 다섯 가지를 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이 대통령은 김정일의 정상회 담 제안 저의부터 확실히 파악하고 대 처해야 한다. 김의 저의는 미국을 미·북 당사자 회담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길 닦기, 남한의 대북 경제지원 재개 유 도,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호 제재 물타기, 한·미공조 이간질과 “민족공 조”분위기 띄우기, 북핵문제의 미·북 당사자 주장 굳히기, 회담을 열었다 결 렬시켰다하며 시간을 끌면서 북핵 보유 를 기정 사실화 하기 등이 그것들이다.

둘째, 이 대통령은 김정일과의 정상 회담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상회 담은 북한 핵이 완전히 검증가능하며

4면에서 이어집니다.

문제일 뿐’이라고 단언하는 리처드 롤 리스 등 전(前) 미 고위 담당자들의 말 을 들으면 워싱턴보다는 오히려 한국의 비 전략적 안목과 소극적 의지가 더 문 제인 듯싶다.

더욱이 한·미정상간에는 이미 한·미동맹을 「21세기 전략동맹」으로 한단

게 높여 나가자는 약속을 했다. 그리고 동맹은 본래 상호지원 관계인데, 지난 4 월 미국 바이든 부통령은 ‘미국은 잘 지내고 싶은데 한국이 제몫을 다하지 않으려 한다’고 아쉬워하더란다. 사실 월남전 이래 미군은 줄곧 한국군의 뛰 어난 국제적 임무수행 역량을 크게 기 대해 왔다. 그 반면 우리가 북한의 도발 과 주변국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는 연

합사 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 이 런 전략동맹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해결 이 한결 용이 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긴 없던 것도 만들었는데, 무엇보다도 연합사 해체가 장기적으로 건전한 한·미 동맹 발전에 장애(障礙)가 되고 연합사 ‘해체’가 ‘유지’하는 것보다도 미국의 경제와 안보에 더 큰 부담이 되 는 측면도 적지 않은 터에 재검토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는가?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면 아예 무효화하 는 것은 몰라도 시기(timing)와 조건 (conditions) 등 합의안의 수정보완 같 은 것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것이다. 그래도 그것이 우리의 미래 자유와 평 화를 좌우하게 될지도 모른다. 진실로 지혜로워야 할 때인 것이다. [필자]

6·25 拉北人士 가족 애타는 호소 “진실 묻어둔채 罪의 용서란 없다”

한반도의 허리를 자른 6·25전쟁이 터진지 내년이면 60년이 된다. 그동안 포용정책이니 햇볕정책이니, 혼란을 거듭하는 가운데 분단의 긴장해소를 위한 노력이 새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이다. 북핵 해결의 방식이 6자회담이든, 양자회담이든 따질 필요 없이 그들이 과연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알 길 없으니 구두선 같은 남북화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러한 와중에 지난 달 미국 우먼스 소사이어티라는 단체회원 50여 명이 모인 자리에 초대받은 적이 있다. 한국의 6·25 전쟁, 그 이후의 현실과 인식을 이해하기 위해 남북인사가족으로서 저간의 사정을 증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던 것이다.

먼저 당대최고의 작가였던 춘원(春園) 이광수(李光洙)선생의 차녀 이정화 씨(74)가 유창한 영어로 당시의 상황과 가족의 심정을 설명했다. 한동안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서 기자로 활약했던 춘원은 인민군에 납치되기 전 공산당으로 전향하기를 종용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절필했다는 것이다.

지난날 동아일보의 손기정선수 일장기 말소사건을 주도했던 나의 아버지 이길용(李吉用) 기자는 사망이 확인된 춘원과는 달리 남북이후 생사는 물론 행적을 전혀 알 길이 없다. 세계지자연맹을 통해 확인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납북자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차디찬 반응뿐이었다.

아무리 전쟁 중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납치는 분명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들어 인도주의 차원에서 문제해결에 협력해줄기를 세계여론에 호소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게 안타깝다. 이제 오랜 세월이 흐른 만큼, 전쟁 중에 저지른 공산주의의 죄악을 용서할 때도 되었건만 이러한 용서란 진실을 인정하고 밝히는 전제 아래 가능한 일이다.

그런가하면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아준 미국에 대해 감사하는 것 못지않게 유감도 남아 있다. 한국전에서 발을 빼려고 휴전협정을 서두르는 바람에 납북자와 국군포로문제의 인도적 처리를 덮어버린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이러한 역사적 과오를 인정하는 어떠한 성의를 보여주는 게 옳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이날 미국여성단체

태평로에서



이태영

· 본회 회우
· 전 한국·중앙일보 체육부장
· 명지대 객원 교수

민남북피해를 보상하는 법안은 만들어놓고 나서, 정작 건국에 기여한 납북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세계여론에 호소하는 초점은 바로 가족해체의 또 다른 비극이다. 6·25 당시 열 살의 어린이였던 내 기억은 희미할 뿐이

에게 가장 소중한 가정공동체의 파괴가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이해하기를 바랄 따름이다.

6·25는 끝나지 않은 전쟁이다. 더구나 우리 납북인사가족들에게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날이 살아남기 위한 전쟁이었다면 지금은 가족을 찾기 위한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보다 더 절박한 투쟁이 어디 있으랴.

여기서 처절했던 그 전쟁 속에서의 의미심장한 기록 하나를 전하려 한다. 가족회가 발굴한 자료 중에 1950년 납북자들이 수감되었던 평양형무소 내벽에서 발견한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자유여 그대는 불사조 / 우리는 조국의 강산을 뒤에 두고
홍염만장(紅焰萬丈) 철의 장막 속 / 죽음의 지옥으로 끌려가노라
조국이며 유엔이며 / 지옥으로 가는 우리를
구출하여 준다는 것은 / 우리의 신념이라

그래서 또 한번 인도주의 세계여론에 호소한다. 그대들이 인류의 평화를 위해 존재한다면 어찌 그 평화가 무참히 짓밟힌 땅, 그 가족의 비원(悲願)을 외면하는가. 몇 해 전 독립공원에서 있었던 남북자승환축구 끝기대회에서 내가 낭독한 가족의 편지 한 구절을 옮긴다.

그리운 아버님. 이 생명 다하여 사랑하는 아버님.

또다시 6월입니다. 엇그제 현충일엔 허공을 맴도는 아버님 모습을 떠올리며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치솟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제 자신을 매질했습니다. 저는 큰 죄인입니다. 아버님 생사조차 모른 채, 여전히 크게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서를 청합니다. 하느님, 불민하고 불쌍한 저희 모두를 용서하십시오. [인]

美 여성단체 초청으로 당시상황 증언 명예회복 위한 법안 국회서 낮잠 한심

대표들에게 호소한 초점은 두 가지다. 먼저 미국정부가 ‘조국은 그대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6·25전쟁에서 숨진 미군병사들의 유해를 찾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과연 우리 정부는 국군포로든 납북인사든 나라를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친 이들을 위해 무엇을 했던가. 8천 명이 넘는 납북인사 가운데는 다수의 국회의원, 검찰과 경찰공무원, 그리고 독립유공자들이 포함되어 있건만 국민보호의 의무를 포기한 정부의 무책임이 개탄스럽기만 하다.

더 분노하는 건 지난 10여년 친북좌파들이 관치는 가운데 ‘납북인지, 월북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궤변으로 문제를 호도하려했던 정부의 태도다. 여기에 더하여 전쟁 이후의 납북, 다시 말해서 어

지만 가장을 잃은 가정은 풍비박산 그대 로였다.

지금도 나는 해마다 한식이나 추석날이면 거의 빠짐없이 임진강변을 찾는다. 분단의 강 건너편 지호지간의 황량한 북한 땅이 내려다보이는 통일동산에 어머님 흔적을 묻었기 때문이다. 지하에서, 아니 천국에서 두 분의 영혼이 만나 쌓인 한을 풀기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임진 강물은 흘러 황색의 너른 바다로 나가고, 백두산과 한라산의 신선한 바람은 휴전선 깊은 숲 속에서 만나는데, 어찌하여 헤어진 가족의 영혼은 여전히 허공을 맴돌고 있는가. 어머니 무덤에서 아버지 이름을 불러본다. 어느 시인의 절규처럼 허공에 헤어진 이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을-

백안의 미국여인들이 내 호소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알 수 없다. 다만 인간

이 시대 ‘참 언론인’을 찾습니다.

09년 大韓言論賞 공모 ... 12월 16일 시상

大韓言論人會는 언론 발전에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주는 2009년도 대한언론상 수상 대상자를 공모한다. 대한언론상 심사위원회는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선정 대상자를 접수, 12월초 시상자를 확정한다. 시상식은 12월 16일(수) ‘송년의 밤’ 행사 때 갖는다. 심사대상은 2008년 11월 1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 발표된 내용이다. 분야는 보도, 논평 및 언론학술연구 등이며, 일간신문, 통신, 방송 및 언론관련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응모 요령

- 분 야 : 보도, 논평, 언론학술연구
- 대 상 : 일간신문, 통신, 방송 등 언론사 및 언론관련 단체 또는 개인
- 공적기간 : 2008년 11월 1일 ~ 2009년 10월 31일
- 구비서류 : 이력서, 사진 2장(명함판), 공적자료 1부
- 접수마감 : 2009년 11월 15일 오후 5시
- 시 상 : 2009년 12월 16일
- 접 수 처 : 서울 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 대한언론인회
우)100-745 전화 02-732-4797, 02-2001-7621

평화의 댐 그 가치를 새롭게 하자

지난 9월 6일 새벽에 발생한 북한의 예고 없는 임진강 황강댐 방류로 인한 임진강의 홍수 피해 때문에 온 나라가 법석이었다. 이미 예고되고 경고되었던 일이라 별달리 새로운 느낌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왜 일이 발생한 후에야 법석을 떨고만 있는지 그것도 잠시 동안만 소리치는지, 의문을 또 되짚고 있을 뿐이다. 문제는 한두번이 아니라는 점과 또 다른 커다란 문제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눈감고 있는, 어쩌면 인지도 안하고 있는 실정임에 더욱 가슴을 조리고 있다.

임진강 유역의 황강댐과 대응댐으로 건설 중인 군남댐, 그리고 북한강 유역의 임남댐(금강산댐)과 대응댐인 평화의 댐의 안전성과 역할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문제는 작년 7월에 상세하게 보도한 적이 있다. 이번처럼 인위적인 홍수피해 뿐만 아니라 임진강 수자원의 고갈적 불균형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황강댐을 통해서 예성강으로 방류되는 수자원의 불균형은 임진강의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행위임에도 아무도 인지를 않고 무감각하게 지내고 있다. 대응댐으로 축조중인 군남댐의 규모도 문제이다. 언제까지 그렇게 소극적으로만 대응할 것인가? 댐의 기능이 홍수방어 뿐이라면 몰라도, 수자원의 확보라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생각하면 이렇 수는 없는 것이다. 대결의 개념이 아니라 공유하고 공동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분명한 상황임을 바탕으로 해야 할 것이다. 현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할수 있는 일은 대응하여 준비하는 수밖에 없지 않은가? 군남댐의 규모는 현재 7,000만㎥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는 저류에 따른 수위가 북측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황강댐의 규모가 3억~4억㎥ 정도임을 고려할 때 하류에 위치한 군남댐은 최소한 1억 5,000만㎥는 되어야 할 것이다. 평상시에는 7,000만㎥ 정도를 저류하여 수자원으로 활용하고 만약 이번처럼 북측에서 불시에 방류하여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홍수조절 능력을 확보하게 하는 것이다.

화천군에 위치한 평화의 댐(임남댐 하류 36km 지점)도 마찬가지다. 1986년 북한강 유역의 북한지역에 축조하는

임남댐에 대응하는 댐을 만들기 위해 국민성금으로 1987년 1단계 공사를 시작하여 1989년 80m 높이로 완공되었으며, 이후 김대중 대통령 정부는 임남댐이 붕괴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2002년 9월 2단계 공사에 착수하여 45m를 높여 2006년 6월

특별기고



조원철

· 연세대 사회환경 시스템 공학부 교수

3,000만㎥ 인 평화의 댐은 금강산댐이 완전히 붕괴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규모"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임남댐에서 평화의 댐에 이르는 물길과 저수공간의 특성에 근거할 때 평화의 댐 규모도 분명하게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1:1의 규모로는 방어하기 힘들다. 분명히 넘치게 되어 있다. 물론 평화의

불시의 홍수도 방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평화의 댐 수자원과 홍수를 제어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수문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염려가 없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편안할까?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지나친 염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일 당하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당하고 나서야 허둥대는,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책임지만 찾는 그러한 상황은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나마 평화의 댐이 있어 이 정도로 불안감은 지울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평화의 댐 자체는 더없이 유익한 역사적 산물이라는 점에서 역사의 또다른 면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제 대책을 정리해 보자. 임진강과 북한강은 분명히 남북이 공유하고 있는 하천들이다. 임진강의 황강댐과 4월5일 댐들과 군남댐, 그리고 북한강 상류의 임남댐(금강산댐)과 평화의 댐, 남북이 머리를 모아야 할 것들이다. 유역의 강수정

보와 수자원을 공유하고 홍수를 공동으로 조절하며 하천생태계를 살려나가는 진지한 협상이 필요하다. 당국은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그간의 무심과 불성실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위 관측시설과 경보시설은 실시간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급히 재정부 해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당직자들의 근무자세다. 프로정신이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 기반시설을 지키는 방재안전관리는 어느 한사람의 손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방재안전관리자들은 항상 긴장감 속에서 상황을 보고 신속하고도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자기훈련을 통해서 방재안전관리 역량을 확립하여 국가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는 사후 약처방에 우왕좌왕하지 말고 그야말로 예방과 적절한 상황관리를 통해서 국민이 안전하고도 편리하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녹색성장이요 서민경제며 국가안보와 국민복지의 초석임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임남댐의 불시방류에 대비한 평화의 댐은 미완이기는 하지만 참으로 든든한 역사적 유물이다. [본문]

장마철등 滿水때 대비 증설검토 필요 防災 안전 관리 역량 제고등 대책 시급



저수용량 26억t의 화천 '평화의 댐' 전경.

에 준공하였다. 댐의 높이는 125m(소양강 댐의 높이는 123m)로 국내에서 가장 높고 길이는 601m에 이른다. 그러나 상류에 위치한 임남댐이 정상부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안전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평화의 댐 관리사무소는 "평화의 댐은 북한에서 내려오는 성난 물로부터 강원도와 수도권 등 하류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늘 98% 이상은 비워져 있다"며 "2003년 말 증축 완료된 임남댐 저수용량이 26억2,000만㎥인 것을 감안하면 저수용량이 26억

㎥ 하류부에 화천댐이 있어 보완될 수는 있다. 물이 없는 이상한, 세계유일의 댐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불시의 방류를 이용한 수공을 계획한다면 남쪽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할 것은 분명히 아니다. 상식이다. 장마철이나 태풍시즌에 평화의 댐 하류부가 만수무강 상태를 적기로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 모자란다. 평화의 댐 용량을 늘려서 담수에 따른 수자원의 활용은 물론

설악단풍따라 즐거운 하루

본회 산악회 가을산행 40여명 참가

단풍의 계절 10월, 본회산악회(회장 안중우)는 지난 10월28일 수요일 남설악 흘림골에서 즐거운 회원단합 단풍산행 행사를 가졌다.

가을단풍산행에는 조창화회장 김재영 송두빈 지용우 최의호 회원등 모두 40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오전7시30분 프레스센터 앞에서 관광버스로 출발, 오전10시50분께 현장

에 도착했다.

A팀은 흘림골에서 12폭포를 거쳐 오색약수터로, B팀은 용소폭포입구에서 출발 오색약수터에서 모두 합류했다.(약3시간 30분 소요)

이날 산행에는 조창화회장의 격려금과 지용우 정운종 안중우회우등이 찬조금을 쾌척, 즐거운 단풍산행과 우정을 다졌다.



주전골에서의 기념촬영.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www.newplus.go.kr

내 집 마련의 기회! 빠르고 더 확대됩니다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한 친환경 그린홈에서
출퇴근이 편리한 도시형 생활주택
다자녀 특별공급과 신혼부부주택
그리고 새롭게 신설된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청약제까지

집이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new** 솔루션

- **NEW + 공급확대**
2012년까지 수도권에서 총 60만호의 보금자리주택 공급
- **NEW + 청약제도**
보금자리주택의 20%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청약제 공급
- **NEW + 가격인하**
용적률 녹지율 조정, 시공과정 합리화 등을 통해 분양가 15% 내외 인하
- **NEW + 주택유형**
중소형분양, 10년임대, 장기전세,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수요자 맞춤형 공급
- **NEW + 입지조건**
도심과 도시인근 선호지역에 집중 공급
- **NEW + 건설기간**
공공이 직접 건설하고 사업절차 간소화로 신속하게 공급
- **NEW + 녹색도시**
생태순환도시, 녹지네트워크 구축, 신 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그린홈 공급

사이버체험홍보관(cyber.newplus.go.kr) 9월 30일 OPEN



10월 1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放送개혁 - 勞使 ‘제자리’ 찾아야 한다

도도함

러다이트운동! 1811년 말 방직기계의 도입으로 섬유 대량생산이 가능해지자 일자리를 위협받은 영국 노동자들은 방직기계파괴에 나섰다. 이 운동의 대표적인 인물 ‘네드 러드’라는 이름을 따 러다이트운동이라 명명했다. 그들의 절박했던 심정이야 당시 양식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전해졌겠지만 그 누구도 그 변화의 도도한 물결을 막을 수 없었다. 그것은 멈출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운명적인 것이었다. 당시에야 해법이 복잡했겠지만 현재의 관점에서 그때를 살펴보면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새로운 기술체제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적응해 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것이 해당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이익이고, 그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보탬이 된다. 그리고 그 신속한 적응을 사회 구성원 전체가 돕고 성원하는 정도에 따라 해당 사회의 성숙도가 규정되었고, 앞으로 도 그럴 것으로 예측된다.

방송의 진화

소를 몰아 논밭을 가는 것이 민족적·전통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문학적으로 아름다워 보이며 농촌에 많은 일손을 고용하고 있을지라도 트랙터의 사용을 못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더럽고(Dirty) 힘들며(Difficult), 위험한(Dangerous) 노동에서 해방되어 창조적 활동을 하려는 것은 인류의 본성이기에 그렇다. 아날로그 방송기술체제가 그 종사자들에게 익숙하고 당장 많은 수의 노동인력을 고용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디지털 방송체제를 막거나 피할 수는 없다. 그것은 손으로 쓴 편지가 정겹다고 이메일 사용을 하지 말자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이다. 2012년으로 예정된 디지털 전환은 지금까지의 방송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갈 것이다. 디지털 방송체제는 전파의 유한성을 훌쩍 뛰어 넘는다. 전파의 일방성을 소거할 것이며 방송과 타 매체, 심지어 통신과의 경계도 지워버릴 것이다. 아니 이미 이 경계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 파동적인 의미의 ‘수용자’ 개념에 근본적인 변화가 초래될 것이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용납하지 않는다. 당연히 국경선은 그 의미가 뚜렷하고 빠르게 사라져갈 것이다. 젊은 층 사이에 유행하는 영드(영국 드라마), 미드(미국 드라마)라는 말은 국경이 사라지고

있다는 알립이다. 즉 젊은 층은 이미 세계 유수의 방송사를 자신의 시청권에 두고 있는 것이다. 정확히 표현하면 방송사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콘텐츠가 그들의 관심사가 되어가고 있다.

한국판 러다이트

미디어법 개정 반대운동은 그 본질에 있어 러다이트운동에 해당된다. 전파의 유한성, 방송과 타 매체·통신과의 경계성을 기술적 기초로 하여 신군부가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구축한 것이 바로 현존하는 배타적 방송독점체제이다. 이 같은 체제하에서 기존 방송사는 팡

時論



최 홍 재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미숙(未熟)

하지만 이러한 공동의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 노조의 편향된 이념이 바로 그것일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프리즘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방송장악이라 선동한다. 재벌에게 방송을 넘겨주려는 것으로 선전한다. (물론 이 같은 주장 혹은 우려가 전혀 근거없는 것은 아니기에 그 대책을 강구해야 했고, 실제 개정 미디어법안에 여러 방어막들이 존재한다) 그들을 지지기반으로 삼는 정당들은 세계의 변화를 외면하고 그저 노조의 주장을 추종한다. 시

디지털 시대 변화바람 피할수 없어 勞組 편향된 이념투쟁 더이상 안돼

짚고 해업을 쳤다. 그러나 이제는 기술의 변화와 수용자 요구의 질적 비약으로 인해 이 체제를 유지할 수가 없다. 산업사회의 생산력을 봉건제도가 담아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미디어법은 기술발전, 매체융합, 콘텐츠중심, 국경소멸의 현재와 미래를 담아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배타적 방송독점체제에서 안정적 이익을 얻던 이들은 이 변화를 수용하지 않으려 했다. 그것이 2009년 한국의 최대쟁점이었던 미디어법 반대투쟁의 본질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따라서 이 투쟁은 러다이트운동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을까 한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러다이트운동 자체는 그 폭력성만 제어한다면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일이 아니다. 미래가 불안정한 사람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활동은 매우 자연스럽다. 일반적으로 합법적인 문제제기 행위는 사회를 건강하게 만든다고 믿는다. 다만 심각한 사회분열로 흐르지 않도록 서로 지혜를 모아 함께 개혁의 길을 걸어야 할 일이다.

대의 변화를 반영하고 미래를 준비하려는 여당의 원숙함이 필요할 때였다. 그러나 오히려 야당과 방송노조를 퇴로없는 구석으로 몰아넣는 듯 했다. ‘경쟁적 우애’의 미숙함은 변화에 따르는 필연적인 갈등을 오히려 증폭했다. 문제는 개혁의 중심이 되어야 할 방송사 내에서 더욱 심각하다. 민주화에 공로를 세운 노조는 공정방송을 확립하는데 기여하는 대신 점령군이 되어 직·간접적으로 방송을 장악해 왔다. 게다가 민주화 시대 투쟁의 도구로 들었던 이분법론·투쟁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권력이 밀려난 자리에 노조가 자리 잡았다. 인사권, 편성권 등 경영권의 핵심사항들에 대한 노조의 권한은 막대하다. 노조가 노조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고 경영권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는다면 디지털시대, 세계화시대에 맞는 방송사로 거듭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정한 방송 또한 연목구어일 수밖에 없다.

개혁의 길

지금 방송사 내외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배회하고 있다. 미디어법개정 위한

여부, 민영미디어법 구체적인 양태가 외부적인 긴장감을 형성하고 있다면 인사권과 편성권 등을 경영진에게 귀속시키는 정상화와 기존의 심각한 편파·왜곡방송에 대한 진실규명을 통한 공정방송의 기틀마련, 이 과제들을 둘러싼 긴장감은 내부적인 요소이다. 예로 MBC의 경우 엄기영 사장은 9월 9일 뉴MBC 혁신플랜을 제창했다. 이를 제대로 못하면 스스로 책임을 묻겠다고 할 정도로 목직한 것이었다.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으나 핵심은 노조에 실질적으로 장악되어 있는 편성권과 인사권을 원래의 자리인 경영진에게 돌려놓는 노사간 단체협약 개정이다.

그리고 PD수첩 조사에 대한 재론과 100분토론 시청자의견 조작사건 재조사에 대한 것이다. 전자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타의 개혁은 불가하며 편파·왜곡보도의 진실이 규명되고 이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방송에 대한 신뢰는 회복되지 않을 것이기에 이 두가지 사안은 개혁의 바로미터일 수밖에 없다. 엄기영 사장은 단체협약 관련하여 9월말까지 원칙적으로 노조와 합의를 보고 11월까지 완료하는 계획을 예의 혁신플랜을 통해 밝혔다.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나 재론도 그 기간 내에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노조는 10월 15일 ‘노보’를 통해 단체협상 논의기구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개혁의 길을 가려는 엄기영사장을 비난하고 나섰다. 예상되었던 긴장이 형성되었다.

19세기 초 러다이트운동의 해법이 참 쉬웠던 것처럼 이 긴장들을 해소하고 공동의 개혁을 일구어 가는 것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노조는 노조다워지고 경영진은 경영진다워지며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광의의 피해자들을 어떻게 함께 포용할 것인가 그 대책을 논의하면 될 일이다.

그것이 모두에게 이익이다. 현재의 시스템을 지금 개혁하지 못한다면 현 방송사는 디지털시대, 다매체시대, 세계화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몰락한다. 그것이 과연 노조원들과 우리 국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가? 같은 가야한다. 함께 길을 내가면 참으로 좋을 일이지만 길을 닦아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당장 몇몇의 비난보다 미래의 평가가 더 두려운 법이다. [4]

전립선 검진 꼭 받으시다

11월 21일 오전 9시부터 실시

젊어서는 전립선염, 나이 들어서는 전립선 비대증·전립선암 등의 위험에 노출된다.

평소와 다르게 소변 보는게 불편하고 아랫도리가 이상하다 느껴지면 전립선에 이상이 없는지 의심을 해보아야 한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립선염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며, 이미 이상증세가 느껴진다면

서둘러 비뇨기과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특히 전립선암의 조기 발견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는 21일 프레스센터 12층에서 실시할 한국전립선관리협회의 대한언론인회 회우들을 위한 ‘전립선 특별 무료검진’은 중요하다. 검진일인 21일 오전 8시 30분 접수

를 시작, 9시에 검진에 들어가며 12시에 검진이 모두 끝나게 된다. 검진은 배뇨장애 증상지수 체크와 설문지 작성 등 문진으로 시작되며 경직장 전립선 촉진, 격직장 초음파검사, 혈액채취(혈중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 전문의와 상담후 전립선약 무료제공 순으로 진행되며 혈액 채취 결과는 1주일 후 개별 통지된다.

전립선암 증후 등이 발견될 경우 전문병원을 소개해 조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는다. 보통 시중 비뇨기과에서 이같은 전립선 검진을 받을 경우 3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이날 검진에는 한국전립선 관리협회장인 권성원 박사, 중앙대병원의 김세철 박사와 중앙대 비뇨기과 전문의들과 본 대한언론인회의 건강강좌를 맡고있는 이운수 박사가 참여한다.

조창화 대한언론인회 회장은 “회우들을 위한 전립선무료검진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만큼 작년에 검진 기회를 놓친 회우들과 또 작년에 검진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던 회우들은 반드시 검진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4]

政治人 말 여과없는 보도 큰 문제

“심장은 생명을 유지하는 펌프에 불과하고, 정작 생명은 당신이 쓰고 있는 시간이다” 일본의 현역 의사이며 일본 신노인회를 이끌고 있는 98세의 히노하라박사가 한 말이다. 우리는 시간을 1분 1초라도 아껴야 한다고 입으로는 강조한다. 그러나 필자부터 이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지만, 시간의 중요성은 말로 표현할수 없을 정도로 큰것은 사실이다. 미국 뉴욕에서는 “유령의 1분”이라고 불리는 “1분의 은총의 시간”이 있다고 근착 뉴욕 타임스는 전하고 있다. 뉴욕에서 출발하는 모든 통근 열차들은 정확하게 시간표보다 1분 늦게 출발한다고 한다. 대부분의 승객들은 이를 모르고 있지만 아주 오래된, 정확하게 1870년 이후 계속돼온 철도당국의 은밀한(?) 정책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출퇴근 시간의 1분은 엄청나게 긴 시간이기 때문이란다. 숨가쁘게 뛰어 왔는데 열차가 막 떠나버렸다면 그 허탈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수 있을까. 그는 30분이나 기다려 다음 열차를 타야하고 그의 하루는 이 1분 때문에 뒤죽박죽이 될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배려하기위해 철도당국이 시간표보다 1분 늦게 출발하는 원칙을 불문율로 지금껏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

1이란 숫자는 숫자의 기본단위이면서, 현대 디지털시대에서는 0과 더불어 필수 숫자이기도 하다. 이 1에 얽힌 얘기는 술하게 많겠지만 오늘은 방송사쪽 얘기로 연결시켜 보자. 11월이면 각 방송사들은 가을프로그램 개편작업으로 바쁘다. 그냥 바쁘게 아니라 눈코 뜰새 없이 바쁘다. 여기서 숫자 1은 매우 큰 위력을 발휘한다. 1이란 숫자로 인해 어떤 프로는 살아 남고 어떤 프로는 폐지되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 1로 대변되는 숫자는 시청자들이 얼마나 해당프로그램을 시청하느냐 하는데서 결정된다. 바로 시청률이다.

“MBC 100분토론”은 긴 역사를 자랑하는 프로다. 물론 중간중간에 이름이 바뀔때도 있었고, 진행자도 자주 바뀌었으며, 여러가지 포맷으로 진행해 보기도 했지만 방송사입장에서는 시청률에 상관없이 지속시켜온 일종의 공공성을 띤 프로라고 해야 할것이다. 이 100분토론이 이번개편에서 사회자를 교체한다고 해서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야당과 노조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손석희교수를 사회자에서 하차시키기로 한것은, 명백히 MB정부의 압력때문”이라고 들고 나온 것이다. 과연 그런가?

MBC 100분토론은 그동안의 성가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시청률이 1~2% 선에서 머무는등 시청자들로 부터 외면을 받아왔다는게 실무자들의 얘기다. 그야말로 공익성을 배제한다면 퇴출돼

야 마땅한 프로라는 얘기다. 실무부서에서는 지난 9월부터 100분토론을 개선할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왔다고 한다. 진행자교체는 기본 의제이고, 포맷을 바꾸어 볼까, 진행방법도 바꿀수 없을까. 시그널뮤직은 관찮은가.....등등. 오랜 실무자들의 검토끝에 진행자교체 쪽으로 결론이 나고 제작진도 보강하는 선에서 경영진에게 보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영진에서는 지난봄 신경민앵커교체와 김미화 교체문제때처럼 정치적으로 비화되는걸 원치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실무부서에서 강력히 건의하는 바람에 그렇다면 실무제작부서에



신대근
· 본보 편집위원
· 전 MBC보도제작국장
· 전 충주·대구 MBC사장

그었다. 이번 사건은 어떤 사안이든 정치적 탄압 내지는 압력으로 결부시키기만하면, 큰 재미를 보아 왔던 좌파 언론과 일부 못된 지식인들, 그리고 야당정치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자충수가 되고 만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다.

지난번에도 언급한 적이 있었지만 표현의 자유와 그에 뒤따르는 책임의 문제는 지금도 우리사

회에서 심각한 수준이다. 네티즌들의 무책임한 악플도 물론 근절돼야겠지만 책임있는 지식인, 그중에서도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발언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겠다.

‘손석희 교체’ 등 싸고 막말·근거없는 공격 코미디 프로 노인·교사 등 비하 너무 심해

서 알아서 처리하라는 결정이 났다고 한다. 그런데도 야당과 노조에서 “MB정부의 지시에의해 손석희를 하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들고나와 당혹해 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아무튼 이번 해프닝으로 인해 그의 거액 출연료(라디오 시선집중 진행비:2008년1억7699만원과 100분토론 1회 200만원으로 1년 54회로 잡으면 1억 800만원등 모두 2억 8천여만원;라디오출연료는 국회자료)도 화제가 됐지만, 서울대 송호근교수같은 지식인 조차도 모 일간지 칼럼을 통해 “괘씸죄에 걸려 보따리를 싸는 스타들이 속출하고 있다(김재동과 손석희의교체를 두고 한 얘기다)”고 평가하는 마당에, 일부 無腦(?)정치인들의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작전에 여의도방송사 주변에서 이번 해프닝의 사연을 잘알고 있는 방송인들은 놀라기는커녕, 야당 인사들의 주장이“누워서 침뱉기”라는 평이 대세였다고 한다.

어쨌든 한때나마 정가를 긴장하게했던 이번 해프닝은, 손석희본인이 자진퇴진 의사를 밝힘으로써 싱겁게 끝났다. 손석희는 지난 22일 100분토론 인터넷게시판에 글을 올려 자진해서 퇴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00분토론에 남더라도 이 상황에선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질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자신의 사퇴가 그동안 거론돼온 “어떤 정치적 배경도 없으며, 행간의 의미를 찾으실 필요도 없다”고 밝힘으로써, 정치적 해석에 대해서도 분명히 선을

법무부장관까지 지낸 민주당의 천정배의원(본인은 의원직을 사퇴했다고 주장하지만 아직도 사퇴서는 수리되지 않고 있어 엄연히 그는 국회의원이다)은 지난10월14일 아침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프로에 출연해 의원직사퇴서 처리문제와 용산참사해결을 요구하는 발언을 했는데 그발언 중 일부가 과연 법무부장관 출신의 국회의원이 할수 있는 얘기인가, 듣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일국의 국회의원이면서 변호사까지 하고 있는 사람이 재야인사나 사건의 피해자 입에서나 나울법한 이야기를 대중매체를 통해 이렇게 까지 말해도 되느냐는 것이다. 녹음테이프를 한번 되돌려 보자.

손석희: 오세훈시장이 협상과정에서 정치적으로요가 끼어들어 협상을 저해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천정배: 사건의 본질은“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살인진압’을 했다는것 아닙니까. 설령 그분들에게 일정정도의 실정법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중략)....무차별 ‘살인진압’한 것이란 말이에요.(중략)유족들의 제일 첫번째 요구사항이 대통령이나 국정책임자의 사과라고 알고 있다.....고귀한 인명이 ‘살인진압’으로 희생됐는데요.”(이하생략)

어떻게 일국의 법무부장관까지 지낸

국회의원이 ‘살인진압’이라고 단정적으로, 또한 반복적으로 표현할수 있을까. 아니 그래도 되는 것인가. 손석희는 당연히 ‘살인진압’이란 단정적 발언에 이의를 제기하든지 반론을 했어야 했다. 지금까지 패널리나 인터뷰이의 답변에 빈번하게 ‘끼어들기’를 해오던 손석희의 다른 일면을 본 것이었던가. 아니면 천정배의 그같은 답변에 동의한다는 얘기인가. 그리고 천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재판을 진행중인 판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고려했었던 것인가. 천의원은 재판부에게 사전에 모종의 시그널을 주기를 원했었던 것은 아닌가. 이와같은 무책임한 정치인의 발언도 표현의 자유로 허용돼야 하는 것인가. 곰곰이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공영방송의 코미디프로그램들이 일부 직종을 비하하거나 도가 지나친 내용을 방송하고 있는데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 제재는커녕 묵묵부답이다. 한나라당 김효재의원이 지난10월5일 발표한 8~9월 두달간 공영KBS와 MBC 코미디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총 149개 코너 가운데 무려 30개 코너에서 교사나 노인, 또는 인체의 일부분을 비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늙고 오래된것 다 버려라”(KBS개그콘서트 할매가 뽀얏다..9월6일 방송분)고 노인에게 외친다. 그런가 하면 (교장선생님이 어린이에게 앞으로 커서 뭐가 되고 싶으냐고 질문하자)“너보다 잘될거야”(MBC개그야 ‘그렇지요’)라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오기도 한다. 또 개그콘서트 8월16일 방송에서는 할아버지가 노래를 부르고 난뒤 “마이크 좀 바꿔 주세요, 마이크가 썩었어요”와 같이 노인을 가치없는 물건으로 취급했고, MBC개그야에서는 유치원생들이 선생님에게 “스승의 은혜는 거지같다, 거지같아서”와 같이 부정적인 말이나 선생님 얼굴에 꽃을 집어 던지는등 지나친 행태를 보였다. 또 “지금 뭐하는 짓이야”코너에서는 “내 이럴줄 알았어, 나이만 디룩디룩 먹어가지고 말이야”(8월16일)라며 노인을 비하했다.

비단 김의원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공영방송의 개그프로를 비롯한 일부 프로그램들이 특정직종이나 노인들 또는 신체의 일부분을 지나치게 희화화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으나, 이에대한 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문화진흥회는 MBC의 대주주(70%소유)다. MBC의 경영진을 선임하고 MBC경영을 관리, 감독하는 막강한 역할을 맡고 있다. MBC방문진이 지난 10년 좌파정권시절 방송문화진흥과는

국민경제 보는 視角 혼란 부채질

시각은 보는 사람에 따라 편차가 있기 마련이다. ‘보다’라는 우리말 표현을 살펴보면 그렇다. ‘쳐다보다, 살펴보다, 눈여겨보다, 꿰뚫어보다, 훑어보다, 뜯어보다, 엿보다, 멀리보다, 미뤄보다, 노려보다, 찌려보다, 꼬나보다, 흘려보다, 깔보다, 낮춰보다, 헛보다, 눈치보다, 밉보다, 흠보다, 흥보다, 모실라보다, 미리보다, 내다보다, 들여다보다, 헤집어보다, 들추어보다, 건너보다, 두리번거리다’ 등 실로 부지기수다.

이 같은 순수한 우리말 표현과 함께 한자로 된 단어도 많다. 생물학적 용어인 ‘원시, 근시, 난시, 약시, 착시, 사시’ 등을 제외하더라도 ‘정시(正視), 주시, 직시, 명시, 응시, 투시, 감시, 환시(環視), 중시(重視), 호시(虎視), 백안시(白眼視), 도외시(度外視), 등한시(等閑視), 경시, 무시, 멸시, 천시, 질시, 괘시, 목도, 목격, 관찰, 해탈’ 등 참으로 다양하다.

세상 사람이야 동일한 사안을 어떤 눈으로 보든 그해 생활의 단편일 테지만 언론의 시각은 정시(正視) 말고는 다른 눈이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정시가 언론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물론 주시나 감시, 투시가 필요하지만 어디까지나 정시의 틀 안에서여야 한다.

세상사를 보는 눈은 말할 것도 없이 민족의 장래와 국가의 미래를 보는 눈은 정시, 직시, 명시여야 한다. 그런데 국가경제를 보는 우리 언론의 시각은 솔직히 말해 좀 어지럽다고 아니 할 수 없다. 난시인 것이다. 10월 중 가장 관심을 끌었던 ‘출구전략’과 ‘포이즌 필(경영권 방어제도)’에 대한 신문지면의 시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겨레신문은 10월7일자 사설에서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저금리정책으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각종 경제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구전략의 시기와 수준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며 “오스트레일리아가 기준금리를 3%에서 3.25%로 올려 출구전략을 가시화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연 옳은 지적일까. 합당한 재촉일까. 출구전략은 요즘 선진 각국들의 최대 난제다. 출구전략이란 베트남전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발을 빼려는 미군의 전략에서 유래된 말이다. 경제에서는 국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각종 투자에 대한 해택이나 지원 등으로 경기의 호응도를 이끌어 내던 지원을 그만둔다

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출구전략은 그 시점을 파악하지 않고 성급하게 진행하다 보면 경기가 좋아지는 초입단계에서는 오히려 경기회복의 활성화 불씨를 저해할 수도 있다. 출구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중 경제에 미칠 후유증을 충분히 고려한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경향신문은 10월9일자 사설을 통해 “실물경제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선부르게 출구전략을 쓸 경우 경기회복기미를 일거에 꺾을 우려가 크다”며 “경기상황과 전반적인 물가, 기업투자과 고용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금리인상의 충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出口 전략 시기싸고 신문마다 다른 주장 정책 전문가 판단 믿고 기다리는 자세를

판단될 때까지 출구전략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한겨레와 상반되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연 올바르게 정확한 진단일까.

한편 매일경제와 한국경제는 각각 10월7일과 10월15일자 사설에서 “경제상황을 잘못 진단해 출구전략의 타이밍을 제대로 맞추지 못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더블 덩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 강구와 함께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재창출하고 강화함으로써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한겨레신문 등의 출구전략 부채질을 경계했다. 경제전문지의 지적인 만큼 확실한 정답이라고 믿어야 할까.

당면한 국가경제에 대한 시각편차가 큰 것은 어느 한쪽 무식의 소치가 아니라면 경제 또는 경제학의 속성 때문이다. 경제가 어려운 것은 경제학자 5명에게 같은 질문을 해도 답은 6개가 된다는 우스갯소리로 짐작할 수 있다. 특히 경기에 대한 예측은 맞히는 경우가 10%도 되지 않는다는 통계다. 어쩌다 과녁을 맞힐 수도 있지만 빗나가도 예상치

최병요

- 본보 편집위원
- 전 한국경제 편집위원

못한 변수 때문이라고 외대면 그만이다. 따라서 신문이 경기정책에 대해 독자에게 설부른 예측과 빛 좋은 논리로 ‘자사의 정시능력’을 과시하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정책전문가를 믿고 맡겨두는 게 정도다. 자칫 선무당이 사람 잡는 꼴은 면해야 하기 때문이다.

포이즌 필(독약 처방)에 대한 논란도 뜨거웠다. 포이

즌 필이란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 중 하나로 적대적 M&A나 경영권 침해 시도가 발생하는 경우에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미리 권리를 부여하는 제

도 창출된다는 것이다. 외국에는 있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없다는 하소연이다.

조선일보가 “‘기업이 나라’라면 기업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적극 동참했다. 문화일보도 사설에서 “우리나라 30대 기업 가운데 ‘외국인 지분’ 국내 주주 지분’이 17개사에 이른다. 이들 기업은 적절한 방어 수단이 없어 기껏 자사주 매입으로 맞설 수밖에 없는 것이 ‘기업 한국’의 경영 현실이다. 오죽하면 이구택 전 포스코 회장이 “적대적 M&A 위협 때문에 잠이 안 온다”고까지 했을 것인가. 포이즌 필 제도 도입과 관련해 올바르게 지적하자면 그것은 기업으로 하여금 포이즌 필로 인한 자금 여력을 투자, 곧 당대와 미래를 위한 일자리 창출로 돌려야 할 책임의 환기여야 한다”고 장황한 설명으로 찬성했다.

반면 한겨레신문은 “정부와 재계의 주장과는 달리 유럽 각국에서는 오히려 경영권방어 장치가 악화되는 추세”라며 포이즌 필 도입을 일축했으며 매일경제

신문도 10월21일자 경제칼럼에서 “정부는 공개매수 및 경영권 방어와 관련된 규율 체계를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영권 방어란 쉽게 말해 공개매수를 제3자가 방해하는 것으로 ‘지배권 이전거

래 해방권’인 셈이다. 오히려 경영권 방어 금지가 당연한 것이다”고 해방을 놓았다.

한국경제신문은 “정부가 지난 2일 ‘투자 활성화대책’에서 포이즌 필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경제계는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방어할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인 반면 일부 시민단체는 정상적인 M&A 시도까지 가로막는다고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보도로 한발 물러나 앉았으며 동아, 한국, 경향 등은 아예 입을 다물었다.

어느 신문의 시각이 옳은 것일까. 대기업과 관련이 있는 신문들의 ‘도입’ 주장이 옳은 것인지, 좌파진보를 내세우는 신문의 ‘도입 불가’ 주장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일부 경제전문지 등의 나 몰라라 식 판전피우기가 옳은 것인지 헷갈리기만 한다. 국가경제에 대한 시각편차는 어렵지만 한 경제의 속성 때문인가, 아니면 역시 어느 한쪽의 무식의 소치 때문인가. [4]

10면에서 이어집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에대해 금전적인 지원을 했다해서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방송개혁시민연대는 10월14일 “방문

진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방개혁은 이 청구서에서 “MBC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있고, 방문진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사업에 예산이 지원된 사례가 있다”며 지난 1998년이후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이

를 바로 잡아 달라고 요구했다. 방개혁이 공개한 보도자료에는, 북한나무심기 지원(10억원)을 비롯해서, 뉴욕필하모니 평양공연 2억원 지원등 방송문화진흥과 관련이 없는 사업지원과 “전북민언련” “강원민언련” “부산민언련” “여성민우회” 등 소위 진보적인 언론관련

단체들에 대한 반복적인 자금지원등을 방송문화진흥업무와 관계없는 사업이나 특정단체를 돕는데 예산을 사용한 근거로 제시했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4]

이름없이 시작 이름날린 名 편집자...

#序幕: “壬戌년에 태어나 윤임술”

“(88년 전)壬戌년에 태어났다. 그래서 尹壬述이로 부를 뿐 이름이 없는 사람이다.”

“이름 없는 편집기자 출신이기에 내 세울 것도 할 말도 없다”고 한다.

“내세울 것이 없어 인터뷰 제의를 거절했다. 지금이라도 취소했으면 좋겠는데...”

옆에서 지켜보던 조창화 회장이 한마디 거든다.

“무슨 겸양의 말씀을. 언론계 대 선배로 건강하게 지내시는 것만도 후배들에겐 귀감입니다. 선배 같은 분을 ‘실버 파이팅’에 소개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오히려 욕을 먹게 됩니다.”

인터뷰 내내 질문은 길어지고 대답은 짧다.(원고 매수 채우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10월 23일 오전 11시. 본회 사무실에서 가진 尹壬述 원로 회우 인터뷰는 어렵게 이어졌다. 인터뷰를 마치고 귀가하여 전화를 주셨다.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하지 못해 어려울 텐데 메인 제목만이라도 내가 도와 주겠다”며 “이름 없는 편집기자 윤임술”로 해 달라는 것. “제목은 기획의도에 맞게 편집위원장이 알아서 달 테니 중간제목으로 하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윤임술. 올해 여든 여덟. 米壽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정정한 모습에 목소리는 카랑카랑하고 말씀에는 힘이 넘친다. “아무 것도 한 일이 없다”는 겸양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론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지금도 일경언론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지역언론 발전에 기여하는 현역이다. 그의 언론인생은 편집기자와 신문 연구, 언론 CEO 3막 3장이다.

#언론인생 1막1장: 편집 달인

“지금도 꿈에서 운전기를 돌린다”

윤 이사장은 경남 창원에서 태어나 1945년 10월 부산일보 편집기자로 언론계에 첫발을 내딛었다. 그 뒤 국제신문 편집부국장(1955년), 세계통신 편집부국장(1958년), 한국일보 편집위원(1960), 조선일보 편집부국장(1964년)을 거쳐 신아일보 창간 편집국장(1965년)을 맡아 신문제작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킨 ‘편집의 달인’이다.

-편집기자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6·25전쟁 직후 국제신문시절인 1950년 8월 28일, 첫 화폐개혁을 특종으로 편집하여 10만부가 팔렸다.”

-신아일보 초대 편집국장으로 컬러신문 시대를 열었고, 다양한 기획으로 차별화 전략을 폈으며 석간 마감시간을 앞당겨 주목을 끌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절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국내 첫 컬러 신문시대를 연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컬러 운전기가 없던 시절이라 4개의 운전기에 각각 파랑 빨강 노랑 검정 잉크를 넣고 핀트를 맞춰야 하는 데 무척 어려웠다. 색상은 선명하지 못했지만 시도는 좋았다.”

“찬란한 불꽃” 실버 파이팅

<16>

회우초대석

尹壬述

인터뷰 글·사진 / 이규섭(본보 편집위원)



“내 세울 것도 할 말도 없다”며 인터뷰를 사양하는 윤임술 원로 회우가 어렵게 카메라 앞에 포즈를 취했다.



언론연



윤임술 신아일보 초

신아일보 창간 편집혁신... 언론 연구원장의 부산일보 사장 거쳐 지방언론 육성 문화재단

-자유당 시절, 최석채 논객(조선일보 주필)은 ‘골프망국론’을 써 화제가 됐고, 그 뒤 회고록에서 “왜 진작 골프를 치지 않았던가”라며 즐겼다. 골프는 정객들이나 부유층이 즐기던 고급 레포츠로 알려진 당시에 신아일보에 골프란을 신설하여 소개했지요.

“사교계 난 가운데 하나로 어느 골프장에서 누구와 누가 팀을 짜서 골프를 쳤는가를 소개하여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당사자들의 항의와 부작용이 심해 결국 폐지했다.”

-당시 신아일보는 독특한 지면구성으로 언론계의 주목을 받았는데, 소개해주시죠.

“종교, 서울백과, 베스트 드레서 난 등을 신설하여 주목받았고, 칼럼이 드문 시절 沈鍊變과 李炳注 칼럼이 인기를 끌었다.”

-편집기자 출신으로 과감하게 사진을 신는 등 비주얼편집을 시도했고 제목도 눈길을 끌었는데 기억나는 것은?

“지면과 제목에 많은 변화를 주었지만 별로 자랑할 만한 것도 기억나는 것도 없다.”

-다시 태어나면 편집기자를 하시려는지요?

“지금도 가끔 운전기 돌아가는 꿈을 꾸는걸 보면 편집기자는 천직이었던 것 같다.”

#언론인생 2막2장: 신문 연구

“언론자료 집대성에 주력”

언론 현장에서 물러난 윤 이사장은 신문연구소 소장(1973년)과 언론연구원 원장(1981~86년)에 취임하여 언론인생 2막을 연다. 그 당시 언론자료를 집대성하여 언론발전은 물론 언론학 연구의 밑거

름이 됐다.

-10여 년 동안 언론연구기관의 수장으로 남긴 업적이 많았지요.

“출판과 影印本 제작 사업을 집중적으로 펼쳤다. 大韓每日申報影印(1904~10년까지 전6권)과 일신문, 협성회 회보 영인본에 공력을 쏟았다. 서울대도서관에 기증한 영인본은 얼마나 많이 열람했는지 너털너털해졌다[영인본 재발행이 절실하다.]”

이야기가 그 시절로 돌아가자 생기가 넘친다. 보람 있는 일을 했다는 자긍심이 묻어난다. 1968년 초판 발행 후 10년 동안 발행이 중단된 ‘新聞年鑑’을 ‘新聞放送年鑑’으로 제호를 바꿨다. 매년 발간했다. 계간 ‘新聞評論’도 월간 ‘新聞과 放送’으로 바뀌 발행하면서 신문과 방송을 아우르는 작업을 함께 추진했다.

이밖에도 윤 이사장 재임 당시 출간된

팔팔한 ‘米壽 현역’

선일보 편집부국장
이일보 편집국장, 논설주간
국언론연구원장, 부산일보사장
일경언론문화재단 이사장

원 · 칼럼니스트)



구원장시절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影印本.



대 편집국장이 제작한 창간호.

언론사료집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韓國新聞
百年誌’를 비롯하
여 ‘언론비화 50
편’, ‘韓國言論人
物誌’, ‘韓國新聞
統監’ ‘社說選集
(14권)’을 편찬하
는 등 열정을 쏟
았다.

-조선일보 재직
시절에도 ‘韓國新
聞社說選集’을 펴
내지 않았습니까?
“당시 방우영문
화재단에서 1800
년대부터 1900년
대까지 100년 동
안 국내외서 발행
된 신문사설을 연

-재직 기간이 짧았던 이유라도?
“노조활동이 강했다. 한국언론사 가운데
편집국장 직선제를 처음 실시한 신문이다.
그래서 그만 됐다. 아니 밀려났다. 신문사
는 역시 오너가 있어야 한다는 게 지론이
다.”

-부산일보사장 시절에 맡은 일경언론문
화재단의 설립취지는 무엇인지요?

“국제신문 창설자인 一耕 김형두 선생
기념사업으로 1996년 설립된 재단법인이
다. 매년 전국 지방언론 보도 내용을 심사
해 우수한 작품을 선정, 시상한다.”

-지방언론에만 시상하는 이유는?
“지방신문들이 지역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 삶의 질을 높이고 중앙과 지
방 간 격차를 줄이지는 취지다.”

-요즘 지방언론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할자매체의 사양화, 광고시장의 위축,
무료신문 배포지역 확대, 보조금 피해 등으
로 무척 어렵다. 구한말과 일제 초기에도
미국의 共立新報와 新韓民報, 러시아의 해
조신문, 大東共報 등이 발행 됐는 데 요즘
지방신문의 위기는 안타까운 현상이다. 갈
수록 작품 공모도 줄고 있다.”

#무대 뒷 이야기

-건강관리를 위해 특별히 하시는 운동
은?

“3년 전까지 매일 용인 광고산에 올랐으
나 요즘은 만보기를 구입하여 5천보 정도
걷는다.”

-골프는?
“용인시 수지구에 거주하는 老記者들의
월례 모임인 一木會 회원들과 골프를 쳤으
나 요즘은 팀을 짜기도 어렵다. 한 달에 한
번 꼴로 지인들과 필드에 나간다.”

-하루 일과는?
“6시 30분쯤 일어나 한 시간 뒤 아침 먹
고, 신문을 읽고 인터넷을 통해 국내 신문
과 일본 신문 사설을 주로 검색해 읽는다.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서울에 나와 지인들
과 만나 담소하고 식사하면 일주일이 금방
간다.”

-컴퓨터는 언제 배웠으며 수준은?
“동네 학원에서 2년 전 배웠다. 간단한
정보검색과 이메일 주고받는 정도다.”

-요즘 신문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다양하게 잘 만들고 있다. 다만 젊은층
은 신문을 잘 안 보고 중장년 이상 독자가
대부분인 데 활자가 적어 읽기 불편하다.”

-가슴에 새긴 좌우명은?
“그런 것 없다. 사는 대로 산다”
술은 40대에 멀리했고, 담배는 예순 중
반에 끊었다고 한다.

-한평생 언론계에 몸담았다. 언론에 남
길 유언은?

“남 길 말이 없다.”
-사모님 연세는 어떻게 되시는지요?
“올해 여든 셋, 다섯 살 아래다.”
-사모님 이름과 두 분 사이에 자녀는?
“그런 것 밝혀서 뭘 해.”

-인터뷰 말미에 쓰는 상투적 기록 아녜
니까? 윤 이사장께서 데스크로 인터뷰지시
를 했는 데 기자가 기초적인 것 마저 취재
하지 못했다면 심하게 질책 하셨을 텐데
요?

“프라이버시아.”

金泰運의
술 이야기

⑤



金泰運 회우

Wine의 세계 (中)

값비싼 와인.

물론 좋겠지. 썩 좋은 토양과 기후,
그리고 양질의 포도를 원료로 만들었
을 테니까. 값이 비교적 헐한 와인.
맛이 결코 나쁘지만은 아닌 것이 포
도주의 생태요, 와인의 세계다.

한-칠레 FTA가 타결되기 전까지
포도주의 위상이 얼마나 당당하고 알
박한 호주머니를 겁나게 했던가.

포도주는 그렇고 그런 것이었다.

“꿈의 와인”

“환상의 와인”

이렇게 불리는 포도주가 있다.

값이 세계에서 가장 비쌀까... 한
해 생산량이 6,000병에 불과하다. 그
나마 포도의 질이 안좋은 해에는
3,000병 정도가 생산될 뿐이다. 그러
니 세계의 애호가들이 난리일 수밖에
없고 값은 천정부지다.

설(說)에 의하면 이런 에피소드가
있다. 루이 14세때, 포도밭의 소유권
을 놓고 어느 귀족부인과 콘티왕자간
에 경쟁이 붙었다. 콘티 왕자가 파격
적인 가격으로 사들여 그 포도밭에
자기이름을 붙여버렸다.

와인 이름은 「로마네 콘티(Roman
n Conti)」

포도밭의 토양 제1, 생산되는 포도
의 질 제1, 일조량 풍부, 만드는 사
람의 기술 제1.

나무랄 데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분명히 해둘게 있다. “비싼
와인이 반드시 맛이 좋다는 보장은
없다”라는 정설이다.

만원 짜리 와인이라도 자기취향과
맛이 맞으면 그것이 제일이다. 한병
에 20만원 짜리 와인보다 3만원 짜리
와인이 자기에게 맞으면 그것으로 와
인섭렵은 끝난다.

다만 한가지 짚고 넘어갈게 있다.
비싼 와인은 역시 정성들여 만들어진
것이고 그 와인을 만드는 사람의 개
성(個性)이 스며들어 있다는 점이다.

와인 애호가들은 그 “개성”을 쫓아
와인을 품에 안는다.

와인병에 붙어있는 라벨을 보면,
그 와인의 수준을 가늠할 수가 있다.
①와인이름 ②빈티지(포도수확연도)
③생산지 ④A.O.C 등급(원산지 명칭
통제) ⑤병입자 ⑥생산국 ⑦알콜도수

점심 식사를 마치고 백지를 내 밀며
사모님 이름을 한자로 적어 달라고 부
탁하자 마지못해 ‘余玉修’라고 쓴다.

63년 동안 동고동락해 온 부인, 그리
고 손자들과 광고산 자락, 용인 수지

등이 구석구석 나열돼 있다. 이렇게
정성들여 만들어진 와인은 물론 상급
품(上級品)이며 비싼 것은 한병에 3
천만원 짜리까지 있다. 그 이름은
「샤토 무통 로칠드」다. 근래 난공불
락을 자존하던 유럽 와인계에 폭풍이
일고 있다.

미국과 남미의 와인공세 때문에 와
인세계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그
광활한 벌판, 쏟아지는 햇볕의 풍부
한 일조량, 기계화된 와인제조법의
혁신. 믿거나 말거나 한가지 에피소
드를 소개한다.

“세계 와인 품평회”가 프랑스에서
열렸다. 와인의 권위자들, 세계에서
내노라하는 와인 감정의 혀를 가진
명인들.

세계 각국에서 출품된 와인이 진열
되고 와인 감정인들은 모두 눈을 가
렸다. 차레차레 와인을 예민한 혀로
감정하며 흘러갔다. 이윽고 “올해 최
고 와인”을 선정하는 순간이 다가왔
다.

감정인들은 “이것이다”고 소리치며
한 와인을 뽑았다. 눈가리개가 벗겨
지고 선정된 와인이 높이 들려졌다.
당연히 프랑스 보르도지방의 명품이
뽑힐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

화제의 와인은 미국 캘리포니아산
포도주였던 것이다.

장내는 술렁거릴 수밖에 없었다.
와인 전문가들은 “앞으로 20년 후면
와인세계도 지각변동이 일어나 미국
이나 칠레 등이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고 점치고 있다.

오래 숙성되고 장인들이 만든 와인
만이 높이 평가되는 것이 아니다.

그해 포도를 수확해서 그해 와인을
만들어 그해에 마셔버리는 와인도 있
다.

“보졸레 누보”다

보졸레 누보는 전세계의 축제행사
로 열린다. 맛은 새콤달콤. 프랑스
보졸레 지방에서 그해 만들어진 보졸
레 누보를 전세계에 실어 나른다. 배
로, 비행기로, 기차로 바쁜 곳은 헬
리콥터로 수송한다.

11월 셋째 주 목요일 영시를 기해
일시에 출하된다. 금년은 11월 19일
영시다. 재미있는 일 아닌가. [4]

아파트에 동지를 틀고 “맑은 공기 마
시며 담담하게 여생을 보낸다”고 한다.
[4]

의사 송형곤은 농협맨

“이론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달려가는 의사가 되자. 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때 농협이 나침반이 되어주었습니다”

농협과 함께 의료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송형곤씨. 당신이 진정한 농협맨입니다



삼성서울병원 농촌의료지원단
응급의학과 전문의 송형곤

같이의가치



‘같이의 가치’란? 농협의 경영이념인 나눔경영의 실천으로 농업인과 도시인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동행, 나누는 동행, 더불어 사는 동행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仁川대교 걷기 平生 못잊을 추억으로

2009년10월17일 오전 7시30분 자택 (인천연수구옥련동)을 나온 나는 아내와 함께 택시를 탔다. 8시까지 부근 인천대교 걷기대회 행사장인 전 대우자동차판매장 자리로 집결하기위해서다. 10여 분만에 행사장입구에 도착했다. 이곳에 살지만 처음으로 와본 대우자판은 과연 넓었다. 문학경기장만큼이나 넓어 보였다.

벌써 많은 참가자들이 왼쪽 대회본부석과 멀리 오른쪽 출발구 옆의 경인방송 중계석 부근에 모여 있었다. 우리는 경인방송 앞으로 가 비 문은 플라스틱 의자를 닦고 앉았다. 9시30분 핑크코스 출발시간 까지는 1시간30분이나 남았다. 대형스피커에서 내뿜는 대교 홍보송, 음악소리에 귀가 쩁쩍 했다. 이때 본부석에서 '핑크코스(참가자 2만9천여명)는 영종도까지 17km완보는 강풍과 천둥 번개 등 기상악화로 그 절반거리인 대교중앙의 주탑에서 되돌아오는 코스로 변경되었다'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기상 여건으로 일정이 단축 된다는 예비통보는 받았으나, 그래도 이만하기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출발10분 전이 되었다. 농악대가 출발구로 오고 징 팽과리 북을 치며 흥을 돋우었다. 행사 본부에 있던 안상수 인천시장 등 기관장들이 옮겨왔다. 9시30분, 역사적인 출발 신호가 울리고 불꽃 축포가 하늘로 치솟았다. 참가자들이 일제히 출발했다. 순식간에 왕복6차선으로 된 시멘트도로의 편도3차선이 짝 매워져 버렸다. 모두가 힘차게 걷기 시작했다.

1시간쯤 걸었을까, 나는 겨우 한숨을 돌려 주변경관을 돌아보았다. 송도 유원지, 그 뒤로 병풍처럼 둘러쳐진 청량산, 그리고 옥련동 주택가가 뚜렷하게 보였다. 내가 "저기 우리아파트 로고가 보인다"고 하자 아내도 "바로 저기 참 잘보인다"며 기뻐했다. 4년 전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교각이 하나 둘 세워지는 모습과 얼마 전 주탑 상판 들어올리는 장면까지 자택에서 아침 저녁으로 보아온 우리부부의 감회는 남달랐다. 바로 그 인천대교, 평생 한번뿐인 그 바닷길을 걷고있다.

인천시민은 물론 서울 수도권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핑크코스 2만9천여참가자와 함께 걷던 나는 잠시 감상에 젖었다. "우리 처음 만났을 적에 손잡고 걷고는 큰 50년 만에 손 이렇게 오래 잡고 걷기는 처음"이라며 아내를 보았다. 아내도 "기억이 안 난다"며 그 시절을 회상했다. 대월 사이로 부부조가 눈에 많이 띄었다. 아이까지 업은 가족도 있었다. 등산모임, 각급단체, 학교 학원, 친목회모임도 많았다.

핑크코스17km의 약 절반거리인 8km 지점 주탑이 가까워지자 도로 중앙의 시멘트방어벽 그늘에 퍼터버리고 앉아 쉬는 사람, 간식을 먹는 사람이 많았다. 바나나 샌드위치 고구마 굴, 심지어 족

김한길 · 본회 회우 · 전 경상매일상무 · 뉴스매거진 논설주간



인천대교 개통기념 걷기대회에 참가한 필자.



세계의 명물로 등장한 인천대교의 위용.

세계1류 명품도시 첫걸음에 뿌듯

발에 소주잔을 나누는 사람도 있었다. 이때가 오전 11시30분... 우리부부도 거기서 잠시 쉬었다. 나에게도 허벅지 근육통이 일어났다. 당초 예정대로면 여기서 영종도 쪽으로 계속 가야 하지만 되돌아가게 되었다.

그런데 일부 참가자들이 그길로 통과해갔다. 바람도 자고하니 내친김에

17km완주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아내는 "우리도 가 보자"고 제안 했다. 나는 "그래도 주최측의 '주탑반환' 안내를 지켜야 하지 않느냐"며 머뭇거렸다. 그리고 미리 장만해간 호두케이크와 꿀을 꺼내 먹었다. 점심대용이다.

여기서 기념사진을 찍으며 주변관광을 하고 있는데, 역시 휴식 중이던 사복

차림의 군인 30여명의 선임자 한사람이 일어서서 참가자들에게 열변을 토했다.

"그 쪽으로 가시면 고생 엄청합니다. 17km영종도종점이 아직 허허벌판이고, 그곳에서 10리길을 넘게 걸어가야 일반 버스를 만날 수 있는데 그 버스도 언제 올지 모릅니다. 행사본부에서 대기시켜 놓았던 셔틀버스도 모두 출발지점 쪽으로 이동시켜 버렸기 때문에 고생길이 뻔합니다. 가지마세요."

우리 생각도 바뀌었다. 오후1시가 넘어 주탑 반환점을 돌아 출발지점으로 향했다. 63빌딩규모의 높은 주탑 위에서 내려다 본 6차선 도로에는, 핑크팀보다 늦게 11시에 출발한 블루코스 1만2천명, 또11시30분에 출발한 옐로코스 8천명이 주탑으로 향해오고 있어 대교6차선은 거의 매워져 버렸다. 울긋불긋 형형색색의 차림새는 바다위에 움직이는 '초대형 단풍'같이 장관을 이루었다.

썰물 때였던 아침녘에는 대교일대가 광활한 갯벌처럼 되어있었는데, 어느덧 밀물로 바닷물이 짝 차서 출렁이고 있었다. 항해하는 선박도 보이고, 신나게 요트를 타는 모습은 우리의 시선을 끌었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여객기2대가 저공비행을 하며 착륙을 시도했다. 누군가가 탄성을 질렀다.

"야아...멋있다. 여기에다 송도 경제자유구역이 어우러지면 세계일류 명품도시다"...바다와 하늘과 땅이 어우러진 세계적 명품도시가 아니겠느냐는 외침이었다. "이 감동 평생 잊지 못 할거야. 아름답고 고귀한 추억으로 간직할거야" 주변 사람들도 한마디씩 읊었다.

반환점을 한참 왔을 때 한 젊은 주부는 양말까지 다 벗은 두 다리를 쭉 뻗어 초등생 두팔에게 주무르게 하고 있었다. 발가락을 잡고 흔들고 주무르고 하는 모습이 아주 기특하게 보였다. "효녀 딸 두었다"며 칭찬을 하자 주부는 "애들이 잘 주물러요"라고 답했다. 우리부부도 이 반환점을 걸으면서 3번이나 쉬었다. 나의 허벅지 통증이 말썽을 부렸다. 쉴 때마다 아내가 허벅지쪽에 지압을 하여 고비를 넘겼다.

이윽고 송도-옥련-안양이란 대형 표지판이 보였다. 우리마을 이름이기에 더욱 반가웠는데, 이런 표지판은 마지막 출구까지 4개나 걸려있었다. 한창 뻗어 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웅대한 모습이 가까이 나타났다. 종착점에 도착한 것이다. 오후2시20분, 장장 5시간에 걸친 걷기대회를 무사히 끝냈다.

고회를 넘긴 우리 노부는 기념메달을 받고 3시가 넘어 귀가했다. 이날의 걷기대회를 평생의 추억으로 간직하면서.....

일기가 고르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시종 대화운영에 힘쓴 주최측과 관계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인천대교가 명실상부한 세계의 관문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한다. [필자]



대한민국 이동통신은
단짝 친구들의 내일에



이동통신이 진보하면, 휴대폰 회사들도 진보하고

TV도, 은행도, 쇼핑몰도, 병원도, 자동차도 진보합니다

이렇게 이동통신이 단짝 친구들과 함께 발전할 때

모두의 가치가 인정받는다는 걸 잘 알기에

대한민국 이동통신은 대한민국 ICT 산업에 다시 투자합니다

우리의 이동통신과 ICT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워

대한민국의 명예를 더 빛낼 수 있도록

隨想 살며 생각하며

지하철 문화와 市民의식



이 향 숙

· 본회 회우
· 전 한국일보 문화부차장
· 코리아헤럴드 경제 문화
체육부장

수 있으니 이것부터가 예사 인연이 아닌 것 같다.

나는 퇴직은 했지만, 백수가 과로사한다는 말이 있듯이 뭐가 그리 바쁜지 거의 매일 외출할 일이 생겨서 지하철을 애용한다.

차를 타기 위해 승강장으로 가는 에스컬레이터에는 그 복잡한 와중에 모 특정 종교를 믿으라는 남자가 함께 오르

자인도 점점 아름다워지고, 외부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 차량이 많아지고, 역 구내를 각종 미술 전시장으로 활용하여 눈을 즐겁게 한다. 차량 내부도 의자가 아름답게 바뀌고, 손잡이가 낮은 것도 설치해서 키 작은 이를 편하게 해준다. 내부가 점점 깔끔해지고 냉난방도 아주 잘 되어 언제나 편안한 기분을 갖도록 배려하는

신부도 아닌 듯 한데 경로석으로가 대뜸 앉는 젊은 여성들, 남이 다 내용을 알도록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들로 인해 조용히 사색하거나 독서할 분위기를 망치기 일쑤다.

요즘 온양온천은 어르신들로 가득한 회색 도시로 변했다. 거기까지 경로우대권으로 무임승차하여 온천욕을 하러가고 오는 노인들로 출발역부터 종점까지 초만원이다. 식당마다 노인들이고, 목욕탕마다 노인들이다.

이른 아침 탕을 때 머리를 거의 배까지 숙이고 긴 머리가 얼굴을 완전히 덮은 채 잠을 자는 엽기적인 아가씨도 보았다.

여러 가지 풍경 중에 가장 민망한 광경은 젊은 남녀가 지나친 스킨십을 하는 광경과, 초미니 핫팬츠나 스커트를 입고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아가씨, 출퇴근 시간대에 20~30분 동안 열심히 화장하는 젊은 여성을 볼 때다.

끝으로 지하철 관련 유머 한 가지, 노부부가 앉아있는 지하철 맞은 편 자리에 한 아가씨가 초미니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할머니 : “에이구, 저 아가씨가 나라면 속스러워서 방 안에서 한 발짝도 안 나올 거야.”

할아버지 : “저 아가씨가 당신이라면 나도 방 안에서 한 발짝도 안 나갈 거야.”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비스와 디자인이라는 외형문화는 날로 진보하는데 그에 맞게 승객들의 에티켓도 진화하는 명랑한 지하철 문화가 아쉽기 만하다. [필자]

74년 첫 개통때 탑승추억 생생 승객들 타인배려 안해 씹쓸

내리며 소리친다. 그러나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다.

한가한 낮에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젊은 남녀가 함께 부둥켜 안고 얼굴을 맞대고 주변 사람을 의식하지 않은 채 당당히 간다. 내가 그 나이 때는 데이트 때 남 앞에서는 손도 못 잡았건만... 격세지감을 실감한다.

개찰구에는 금년 6월부터 매표구가 폐쇄되고, 사람 대신 기계가 표를 팔고 있다. 매표구에 있던 젊은 직원들은 다 해고된 걸까.

요즘 지하철은 노선 수와 미적인 면에서는 진화가 빠르고, 승객 수준은 제자리라는 느낌이다. 차량 외형의 디

게 반갑다. 노선도 점점 많아지고 길어져서 현재 9호선까지 운행되는데 현재도 신분당선이 공사 중이다. 이제 우리는 점점 땅속으로 다니는 시간이 많아진다. 최초의 노선인 1호선은 나름대로 계속 발전하여 노선이 북으로는 소요산까지, 남으로는 신창(아산시)까지 운행된다.

그러나 승객들은 타인에 대한 예의와 배려 차원에서 상응하는 변화가 늦은 것 같다. 다리를 꼬고 앉아 옆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 서 있다가 빈자리가 나면 남을 밀치며 짹짹 뛰어가서 앉는 사람들, 시끄러운 차내에서 더 큰 소리로 외치는 잡상인들, 임

환경동우회 회원들이 「한국원자력문화재단」주선으로 지난 13~14일 1박 2일 일정으로 영광원자력발전소를 다녀왔다.

그날 40여명의 전 직장동료들이 다시 만나 뜨거운 손을 잡고 웃음꽃을 피우며 모두 버스에 올랐다.

분위기는 지난날 현직 때 야유회 가던 때나 다름없었다. 버스가 서울을 떠나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차창으로 보이는 넓은 들녘은 도시를 떠난 우리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엄영섭 동우회 회장도 인사말에서 모처럼 바람쐬러 나오니 가슴이 시원하다고 했다.

이번 길은 원전견학 뿐 아니라 동우회 회원간의 만남도 가지게 돼 참으로 즐거웠다.

첫날은 영광원전 부근식당에서 이름 있는 영광굴비 점심을 먹은 다음 원자력발전소 견학에 들어갔다.

우리나라(설비용량 1,772만 KW)는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독일 다음으로 세계 6위의 원자력 발전국이라고 한다. 또 원자력 발전은 국내수요의 40%를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여자인내원을 따라 영광원자력발전소 제1호기(견학준비된 곳)에 들어가서 내부시설과 빈틈없이 안전운전을

하고 있는 직원들을 보았으며, 지진에 대비해 발전소 건물을 5중 방호벽으로 둘러쌌다는 설명도 들었다.

그리고 「원자력 핵이 분열하면 많은 에너지와 함께 2~3개의 중성자가 나오고 이 중성자가 다른 원자핵과 부딪치면 또다시 핵분열이 일어난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핵분열이 이어지는 것을 연쇄반응이라고 하며, 이 과정에서 생기는 막대한 에너지가 바로 원자력 에너지」라는 설명도 들었다.

이날 저녁식사는 유명한 풍천장어로 하고 장성군 백양사가 있는 백양관광호텔로 가서 자유시간을 가졌다.

방은 2인 1실로 배치되었으나 우리방에서는 5~6명이 모여 밤 12시가 넘게 소주잔을 기울이며 현직 때 일하던 여



이 선 희

· 본보 논설위원
· 전 경인매일 논설위원
· 환경 동우회 회원

러 가지를 떠올리며 떠들었다. 열심히 일했으니 이야깃거리도 많은 듯 했다.

늦게 잔 탓인지 아침 6시 모닝커피시간 전화를 받고서야 췌다. 호텔위치가 야산기슭이라 창문을 여니 맑은 공기가 시원하게 물려든다.

우리는 아침산책을 하고 조식을 한 다음 호텔 세미나실에서 조선대학 원자력 공학과 이경진 교수의 특강을 들었다.

50만년전 인간이 불의 에너지를 사용하기 시작해서 17세기 석탄에너지 사용, 20세기 석유에너지 사용, 그다음 원자력에너지 사용까지의 에너지 발자취를 하나하나 강의한 것을 들었다. 그리고 섬, 산간지에는 친환경적인 소규모 태양전기, 풍력전기 시설이 바람직하다

原電 필요성 · 유용성 절감

韓經 동우회원 영광 방문기

고도 했다.

원전쪽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는 화석연료는 석유 40년, 석탄 155년, 천연가스는 65년 분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 연료인 우라늄은 전 세계에 풍부하게 골고루 매장되어 있고 소량의 연료로 막대한 에너지를 내며 수송과 저장이 쉽다는 것이다.

특강이 끝나고 우리일행은 내장산으로 이동했다. 「내장산단풍/ 사람들은 미친다/ 미치지 않고 어찌리/ 언덕에 올라 소리를 지르다가/ 내려와 이리저리 뛰어도 본다/ 두팔을 벌려/ 단풍나무를 안아도 본다/ 불타는 단풍/ 미치지 않고 어찌견디리」 단풍이 절정일때 내장산에 가본 생각이 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갔을 때는 단풍이 들지 않았다. 안타까운 나머지 일행중 10여명은 케이블카로 산위에 올라가 사방을 둘러보고 소리라도 지르고 내려오기도 했다.

우리는 내장산을 둘러본 것을 마지막으로 서울로 돌아왔다. 원자력발전소견학, 동우회 회원들의 만남은 참으로 값진 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필자]

한때 동북아 최강의 성세를 떨치던 고구려가 멸망한 것은 668년 9월 26일. 올해는 양력으로 11월 12일의 일이었다. 이보다 4년 전인 664년에는 최고집권자 연개소문(淵蓋蘇文)이 죽었다. 642년에 유혈정변을 일으켜 영류왕과 친당파 대신들을 숙청하고 보장왕(寶藏王)을 내세운 이후 23년간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대막리지 연개소문은 죽기 전에 아들 3형제에게 이렇게 유언했다.

“너희는 절대로 관직을 탐내어 서로 다투지 마라. 서로 반목하여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세 아들의 사이가 좋지 못하다는 사실을 연개소문이 잘 알고 있었기에 한 말이었다. 하지만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게 마련이다. 연개소문은 이세민(李世民: 당태종)을 비롯한 당나라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왕과도 같았던 불세출의 영웅이었지만 자식농사만은 잘못 지었다. 그가 죽자 세 아들이 곧 골육상쟁을 벌였던 것이다.

연개소문이 죽을 때 맏아들 남생(男生)은 막리지, 둘째 남건(男建)은 주부, 막내 남산(男産)은 조의두대형 벼슬에 있었다. 이것이 연개소문의 한계요 고구려의 비극이었다. 오로지 자식들이란 이유로 자질을 확인하지도 않고 높은 벼슬을 주어 국정에 참여시켰던 것이다.

연개소문의 뒤를 이어 남생이 대막리지에 올랐으나 이내 권력투쟁이 벌

어졌다. 남생이 지방을 순시하는 사이에 소인배들의 이간질에 넘어간 것이었다. 남건은 남생의 아들을 죽이고 자신이 대막리지가 되었다. 이에 분격한 남생은 이성을 잃고 당에 항복해버렸다. 당 조정은 환호했다. 연개소문이란 호랑이가 버티고 있어서 그동안 정복하지 못한 고구려였다. 그 무섭던 연개소문이 죽자 이제 고구려가 이빨도 발톱도 모두 빠진 병든 호랑이가 되어 버린 것이었다.

보장왕 25년(666년) 12월에 당은 제3차 고구려원정군을 일으켰다. 이때 반역자 남생은 당군의 앞잡이가 되어 고구려 정벌군의 앞장에 섰다. 이치(李治: 당고종)는 그 이듬해 7월 신라에 칙령을 보내 고구려를 칠 군사를 보내도록 명했다. 신라의 법민왕(法敏王: 문무왕)은 김유신(金庾信) 등 장군 30명과 20만 군사를 거느리

고구려 亡國의 교훈

溫故知新



황 원 갑

- 본회 회우
- 소설가
- 역사 연구가

고 출전했다. 백제에 이어 고구려 정벌을 위한 나당연합군이 다시 발진한 것이었다.

당군은 요하를 건너 요동의 여러 성을 함락하고 그해 연말에는 압록수까지 이르렀다. 이듬해 668년 5월에 당군 50만은 마침내 압록수를 도하, 파죽지세로 남하했다. 법민왕이 이끈 신

라군도 평양 외곽에 이르렀다. 백만 대군에게 포위된 평양성은 완전히 고립된 채 한 달 동안 버텼다. 조정에서는 주전파와 주화파로 나뉘어 내분을 벌였다. 주전파의 우두머리는 남건, 주화파의 우두머리는 남산이었다. 두 형제는 대판 싸우고 결국은 각자 살든지 죽든지 알아서 하기로 했다.

남산이 주화파를 이끌고 항복했으나 남건은 끝까지 결사 항전을 다짐했다. 하지만 하늘이 이미 고구려 편이 아니었다. 9월 26일 새벽, 반역자

들이 내통하여 성문을 열자 나당연합군이 물밀듯이 성안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성안 곳곳에서 난전이 벌어졌지만 때는 이미 늦어 그날 평양성은 함락당하고 말았다.

당군 총수 이세적은 보장왕과 태자, 남건과 남산 형제, 대신과 장수, 백성 등 남녀 포로 20만 명을 이끌고 개설했다. 이는 8년 전 백제를 정복하고 소정방이 끌고 간 2만 명의 10배에 이르는 숫자였다. 왕과 형제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앞에 반역자 남생은 당나라 장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말을 타고 갔다. 개설회군의 자격이었다.

900년 역사의 고구려가 하루아침에 망한 원인은 무엇보다도 제해권 상실로 인한 해상방어력의 약화에 있었다. 둘째는 수·당과의 오랜 전쟁으로 국력이 황폐화하고, 회복이 늦은 탓이었다. 셋째는 유능한 후계자를 양성하지 않은 연개소문의 독재 권력이 내분을 불러온 결과 민심이 흩어지고 당의 공격을 효율적으로 방어하지 못한 점이었다.

결국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국운의 융성은 국리민복(國利民福)과 부국강병(富國強兵)에서 오고, 망국의 재앙은 내우외환(內憂外患)에서 비롯된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고구려의 망국사도 분명히 일러준 것이다. 모를지기 위정자가 되어 무비유환(無備有患)의 어리석음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국]

잊지 못할 그때 그일들

중앙정보부원 숨겨주기

중앙정보부의 黃吉台가 그가 몸담았던 정보부에 의해 쫓기는 몸이 됐다. 사연은 간단했다. 서울시청을 담당했던 그가 金玄玉 시장을 감싸고 정보부의 내막을 알렸다는 모함을 동료들이 김형욱 부장에게 올렸기 때문이다.

발군의 정보수집능력을 시샘한 몸들 동료들 때문에 하루아침에 벼락을 맞았다.

세상이 왜 이런가. 우울한 심정을 달랠수 없었는데 어느날 오후 늦게 그에게서 집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정형 나 좀 숨겨주세요” 다급한 목소리였다.

내 집 약도를 자세히 알려주고 그를 맞으러 집을 나갔다. 간첩이면 몰라도 왜 그를 외면하겠는가.

집 앞길에서 얼마 안가서 그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며칠 사이 그의 얼굴이 너무 초췌해져서 나는 외락 그의 손을 잡았다.

처음엔 정보부원과 기자사이였으나 날이 갈수록 그의 인간미에 끌리게 됐던 것이다.

저녁을 겸상으로 먹는데 몇 술 뜨지 않고 수저를 놓았다. “黃형 억지로라도 좀 더 드세요. 6·25동란 때 일선 장교로서 몇 차례나 사선을 넘긴 분이 용기를 내세요.”

내 위로의 말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鄭 형은 모릅니다. 南山감찰실로 끌려가면 바로 죽습니다.”

수배령이 풀릴때까지 내집에서 지내도록 그의 마음을 다독였다. 며칠 쫓겨다니느라 몹시 지쳤을테니 일찍 잠자리에 들도록 했다.

다음날 새벽 그의 부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곤히 잠든 그를 깨워 전화를 받도록 했다.

몇마디 주고 받자 “뛰라고” 하며 결국 전화를 끊었다.

새벽에 정보부원 몇 명이 들이닥쳐 곤히 잠들어 있는 黃형의 아들 딸 둘을 울부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억지로 끌고 갔다는 것이다.

黃형은 그 길로 그의 집으로 가서 부인을 만나고 南山으로 자진 출두했다.

말할 수 없는 고문 끝에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로 넘겨졌다. 선고공판이 있는날 정보부에서 이유불문하고 실형을 내리라고 압력을 가해 왔다.

판결문을 하루아침에 바꾸려니 “무



정 준 모

- 본회 회우
- 전 신아일보 도쿄특파원
- 6·25전쟁 종군기자

죄이지만 유죄이다” 이 해괴망칙한 판결문은 육군본부 법무감실에 보관되어 있다.

黃 피고인은 고등군법회의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악명높았던 김형욱은 다른 일에 쫓겨 이 사건을 깜빡 잊었던 모양이다.

사필귀정 黃형은 풀려났다. 자유의 몸이 된 그를 만났더니 유치장에서 우연히도 찢어진 신아일보 지면에서 기명의 내 기사를 읽고 얼마나 반가웠던지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았다고 했다.

黃형은 전역신고를 내고 민간인 신분이 됐다. 얼마되지 않는 퇴직금과 연금으로는 생활이 어려웠다. 설날과 추석을 앞두고는 신문사로 전화가 걸려온다.

“黃형 지금 곧 신문사로 오세요.” 청와대, 공화당 그리고 정보부장에 게서도 보내온 촌지를 나누어 가졌다. 얼마 후 金玄玉 시장의 추천으로 黃형은 부산시청 상공국장으로 발령이

났다.

그는 틈틈이 행정시험을 보고 행정 실력을 쌓아왔다. 언젠가 부산으로 한 번 놀러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부산은 내가 기사를 시작한 고장. 기쁜 마음으로 국장실로 들어섰다.

점심은 남포동 일식당에서 푸짐하게 대접 받았다.

작별때 내차 트렁크에는 사과 광주리에 밀바닥은 참숯을 깔고 전복을 차곡차곡 쌓고 얼음을 가득 채운 선물이 실렸다.

그는 경북도 기획조정실장(부지사격)으로 영전되고 그 자리에서 임기를 마치고 정년퇴임했다.

몇 년전 黃형은 서울시장 출입기자단 OB의 초청으로 점심대접을 받는 자리에서 내 이야기를 끄집어 냈던 모양이다.

쫓기는 몸이 되어 정보부 모 국장(경남경찰국장출신) 집으로 찾아갔더니 “누굴 죽이려고 찾아왔느냐”며 문전박대 당했다는 이야기를 자리를 함께 했던 어느 회우로부터 전해 들은 적이 있다. 그가 성남시 분당에 살고 있다는 소식은 듣고 있으나 전화번호도 주소도 모르니 찾을 길이 없다.

그동안 많은 세월이 흘러 나도 늙었고 그도 늙었을 것이다. 꼭 한번 만나서 회포를 풀었으면 한다. [국]

회우들이 펴낸 新刊

윤주영 회우 ‘百人百想’ 출간 - 사진전

사진작가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윤주영(전 문공부 장관) 회우가 한국의 현재를 이룩한 현존 100인의 얼굴을 흑백으로 수록한 사진집 百人百想을 출간했다.

윤주영 회우는 지난 10월 10일 세종문화회관 제1전시실에서 백인백상 전시와 함께 출판기념회를 성대하게 열었다.

윤주영 회우는 지난해 같은 주제로 한국의 50인전을 연지 1년 만에 다시 100인의 우리 사회 주역을 엄선해 그 내면의 마음을 사진에 담느라고 온 정력을 쏟았다.

특히 수록된 100인 모든 이로부터 600자 에세이를 받아 사진과 마음을 함께 읽을 수 있도록 했다.

百人百想에 수록된 100인 가운데는 국악계 원로로 올해 100세인 이해구를 비롯해 김준엽 전 고려대 총장,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 이인호 전 러시아 대사, 소설가 이문열씨, 김동길 전 교수 등이 있다. 또 남시욱, 안병



훈, 이명동, 이상우, 이해복, 조용중 등 6명의 본회 회우도 수록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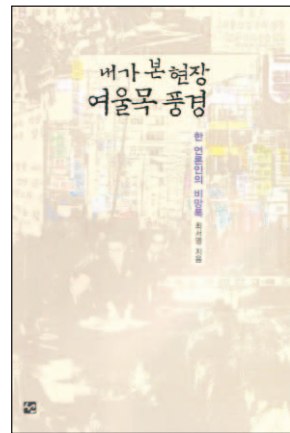
윤주영 전 장관은 1979년 공직에서 물러나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올해로 꼭 30년을 카메라를 메고 전국을 돌며 문화유적과 인간문화재의 사진을 찍기 시작해 국내뿐 아니라 안데스 산중 원주민이나 중국, 베트남, 아프리카 등 세계 구석구석의 사진을 찍었다. 윤 전 장관은 90년 네팔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의 사진 ‘내세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로 제 15회 이나노부오상을 받기도 했다.

최서영 회우 ‘내가 본 현장 여울목 풍경’

40년의 오랜 세월을 언론계에서 보낸 최서영 회우(전 경향신문 정치부장, 코리아헤럴드내외경제 사장)가 격동의 시대를 살면서 기자가 목격한 그때 그 일들을 현장에서 본대로 느낀 대로 적은 비망록 ‘내가 본 현장 여울목 풍경’을 펴냈다.

저널리스트는 역사의 일기를 쓰는 현대판 사관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래서 외국에는 저널리스트들이 쓴 논픽션 출판물이 독서계의 주류를 이루는 나라가 많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이 매우 뒤쳐져 있다. 따라서 이 책은 그런 점에서도 큰 뜻이 있다.

우리 언론계의 실상과 기자 사회의 풍속도, 취재에 얹힌 각 출입처의 생태, 지금은 잊혀져 가는 그 시절 그때의 여러 사건들, 또 한 시대를 이끌었던 역대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특파원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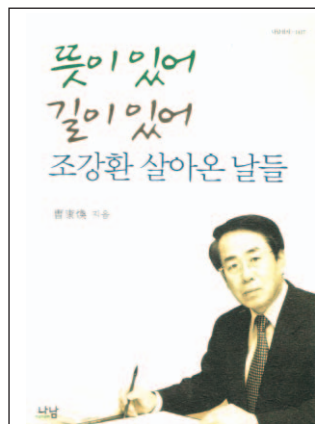
을 통해 본 일본의 이모 저모...

이 책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 그대로 재미있게 쓰여 있다. 우리 현대사의 흐름을 증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언론의 역할과 기자들의 생리를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만하다.

조강환 회우 ‘뜻이 있어...’ 등 2권 출간

조강환 회우(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전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현방송통신연구원장)가 그 동안의 삶을 되돌아본 자서전 ‘뜻이 있어 길이 있어’(나남출판사·475쪽)와 조강환 칼럼집 ‘광화문 30년’(나남출판사·890쪽)을 발간했다.

‘뜻이 있어 길이 있어’는 1966년부터 30여년간 동아일보에 재직했고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상임위원을 역임한 저자의 일생이 박진감 있게 펼쳐진다. 저자는 “되돌아보면 평생 외롭게 기다려온 삶, 욕망과 패배의 삶, 진실추구와 희망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감추는 것 없이 살아온 자유인이었다”고 회상했다. 이 책은 모든 내용이 사실 그대로 기술되어 있고 단 한명도 익명이나 가명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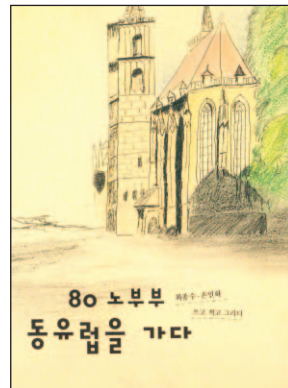
조강환칼럼집 ‘광화문 30년’은 동아일보에 재직하면서 동아일보 칼럼 ‘오늘과 내일’, ‘광화문’, ‘동아광장’, ‘횡설수설’ 등에서 사회정의 실현을 갈망하는 비판언론인으로서 정론직필을 펼쳤던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최종수 회우 ‘80노부부 동유럽을 가다’

최종수 회우(전 한국일보 논설위원, 전남일보 창간 사장, 전 케이블 TV 방송협회장)가 부인 손인화(출판인, 동화작가) 씨와 공동으로 ‘80노부부 동유럽을 가다’라는 제목의 여행기를 책으로 펴냈다.

생애중 47년간 한길로 언론계에서 살아온 최 회우와 40여년간을 한 눈 팔지 않고 출판계에 몸담아온 부인 손인화씨는 80을 눈앞에 두고 평생 글을 다루는 일을 하며 살아왔다는 공통적인 바탕을 여행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합작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이 여행기를 펴냈다고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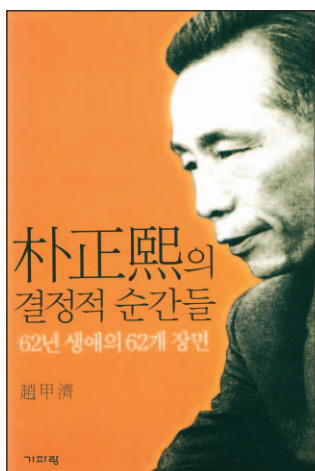
독일 프랑크푸르트, 뮌헨,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 비엔나, 헝가리 부다페스트, 슬로바키아 타트라, 폴란드 크라쿠프, 아우슈비츠, 체코 프라하, 독일 로텐부르크를 돌아보는 여정을



거치며 필자는 건축양식을 테마로 하여 여행기를 꾸몄다.

최 회우가 쓴 글과 부인 손인화씨가 촬영한 사진 및 스케치를 아담하게 조화시켜 편집한 이 책은 평소 여행에 관심이 많은 독자라면 부담없이 읽을 수 있는 여행기로 추천할 만하다.

화제의 책



“朴正熙의 결정적 순간들” 안병훈 회우, 조갑제씨 저서 펴내

출판사 기과랑을 운영하고 있는 안병훈(전 조선일보 부사장)회우는 10월 15일 박정희 사거 30년을 맞아 조갑제 씨가 쓴 ‘박정희의 결정적 순간들’을 펴냈다.

이 책에 담긴 박정희의 결정적 순간들은 조갑제씨가 수년 동안 집필한 13권의 박정희 전기 가운데서 그의 62년 생애를 의미하는 62개 장면을 골라 재편집한 것이다. 부제도 ‘62년 생애의 62개 장면들’로 되어 있다.

저자는 이 책은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한 사람’으로 자연과 사람 특히 보통의 서민을 사랑한 박정희의 인간적인 모습을 주로 골랐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한국사람, 가난하고 어렵고 약한 사람들에 대한 그의 사랑을 담아내고자 했다고 한다.

저자가 이 책을 펴내게 된 것은 기과랑 사장인 안병훈 회우가 박정희 사거 30주년을 맞아 권위주의와 독재자로만 인식되고 있는 박정희의 인간적인 모습도 찾아보자는 아이디어에 맞춰 박정희의 62년 생애를 상징하는 62장면을 고른 것이다.

책은 박정희의 출생부터 소년시절, 일본 군 입대, 결혼 등 젊은 시절부터 혁명, 국가 재건과 경제 건설 그리고 김재규에 의해 암살될 때까지 이 시대의 고비 고비 마다 운명의 키를 쥐었

던 그의 인간적 모습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있다.

스스로 ‘가난은 나의 스승이자 은인이다. 나는 24시간 이 스승, 이 은인과 관련이 있는 일에서 떠날 수 없다. 소박하고, 근면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서민사회가 바탕이 된, 자주독립된 한국의 창건, 그것이 본인 소망의 전부’라고 밝힌 박정희를 저자는 경제발전과 국가발전의 기틀을 잡은 사람으로 그린데 이어 장기 집권은 했어도 권력형 비리에 엄격했고 자신을 꾸미는 일을 일체 하지 않은 사람으로 그렸다.

언론인 金聖鎭의 片鱗

추 모 사



정 기 정

- 본회 회우
- 전 동양통신 정치부장대우
- 전 MBC 감사
- 전 마산 MBC 사장

를 풍겼다. 낙종을 했거나 기사 방향이 틀렸을 때 그는 그때 그때 지적을 하지않고 한두달에 한번씩 부회를 할때 하나 하나 예시를 하면서 당사자를 더욱 당황케 만들곤 했다.

그는 여러 자리에서 「나무를 보지말고 숲을 보라」는 말을 후배들에게 자주 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일보 올챙이 기자시절 신익희 선생의 한강변 선거연설 취재를 갔다가 군중들에 휩쓸려 교통편을 놓치고 걸어서 저녁 늦게 회사에 돌아왔더니 이미 신문이 나온 후 였다고 회고하며 웃었다.

그는 술을 즐기지는 않았지만 주당들과 어울려 토론하고 대화하기를 좋아했다. 1970년 가을로 기억되는 어느날 그는 저녁에 부회를 소집했고 취기가 오른 「주니어 그룹」은 그를 앞세워 2차를 갔다.

지금은 없어진 광화문의 국제극장 뒤편에 「샤르망」이라는 카페가 있었다. 언론계의 술꾼이라면 김봉숙을 모르면 안된다. 우리들은 그 곳에서 자정이 넘도록 양주병을 비웠다.

통금이 있던 시절이라 자정이 넘으면 교통편이 항상 문제 였다. 새벽 1시가 가까워야 우리들은 「샤르망」을 나섰다. 당시 국제극장 앞에는 광화문 파출소가 조그맣게 위치해 있었는데, 통금을 넘긴 시간이라 경찰의 검문은 당연했다. 그런데 일행 중 누

군가가 객기로 경찰관의 모자를 빼앗아 집어 던졌다.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 경찰관들과 우리 일행의 몸싸움이 시작됐고 급기야는 파출소의 유리창이 부서지는 소란이 일어났다. 금방 백차들이 몰려오고 우리들은 파출소 안에

감히는 신세가 되었다. 리더였던 김부장은 노련하게 사태를 수습했다.

그는 어디론가 두어 차례 전화를 하더니 파출소장에게 각서를 쓰고 훈방을 받는 협상을 이끌어 냈다. 그런데 막상 집에 가려고 하니 차편이 없었다. 그는 다시 파출소장을 설득하여 백차에 우리 일행을 모두 태우고 정릉에 있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렇게 해서 부회는 조용히 끝난 셈이 되었고 그는 다음날 아침 아무런 내색도 없이 부장석에 앉아 취재지시를 내렸다.

4년간의 워싱턴 특파원 생활의 결과인지는 알수 없지만 그는 서울이나 동경에 주재하는 외국 특파원들과 폭넓은 교류를 가졌다. 어느날 국회 취재를 끝내고 회사로 돌아왔더니 그는 나에게 저녁 약속이 있느냐고 물었다. 별일 없다고 했더니 함께 저녁을 하자는 것이었다. 나는 왜 벌써 부회를 할까?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시간이 되어 그를 따라 나섰더니 교보빌딩 뒤편의 한정식 집인 구 장원으로 데려갔다.

당시 「워싱턴 포스트」동경 지국장 이던 「오버도퍼」와의 저녁 약속이었다. 나는 그날 그의 영어구사 능력과 화술에 솔솔히 놀랐다. 약 2시간의 만찬 동안 「오버도퍼」는 간간이 국내 정세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대부분의 시간을 그는 혼자서 답하고 설명하면서 대화를 이끌어 갔다. 그는 역시 우리말이든 영어든 能辯家였다

당시는 어느 언론사나 다 마찬가지로 컷지만 아침에 출근하면 부장 주재로 「티타임」을 갖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런데 김부장은 매일 아침 티타임 때 국내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되지 않은 뉴스를 한두 가지씩 풀어 놓았다.

나는 그의 뉴스 소스가 어디인지 항상 궁금했다. 그런데 어느날 주니어들 몇 사람이 밖에서 1차를 하고 2차로 김부장 댁을 쳐들어 간적이 있었다. 그날 분위기가「업」되어 모두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거실 소파 등에 자게 되었는데 나는 새벽녘에 눈을 뜨게 되었다. 시계를 보니 5시. 그 때 김부장이 자고 있던 안방에서 라디오 소리가 들렸고 가만히 귀를 기울여보니 AFKN 뉴스 방송이었다.

나는 김부장이 매일 아침 티타임때 털어 놓던 새로운 뉴스의 소스가 어디인지를 알아내고 혼자 미소를 짓던 기억이 새롭다.

金聖鎭 - 아마도 그는 언론인으로서 보다 朴正熙대통령을 끝까지 모신 불후의 대변인으로 역사에 기록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와 함께 일하면서 언론인으로서의 그의 능력과 인격을 더 사고 싶었다.

지난 9월19일 토요일 아침,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 분과의 마지막 이별의 의식에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을 이 글로 대신한다. [4]

가을 歷史 문화탐방 떠납니다

11월 16, 17일 영주 · 울진 · 청송일대로

대한언론인회는 가을철 문화유적 탐방을 오는 11월 16일(월)과 17일(화) '1박2일'로 정하고 아래와 같이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탐방 계획은 첫날 경북 영주의 부석사와 소수서원을 돌아본 뒤 울진의 불영계곡을 거쳐 백암온천의 한화콘도에서 숙박하고 이튿날은 청송의 주왕산과 그 주변을 돌아 본 뒤 귀경하는 일정입니다.

참가 인원은 교통편과 숙박을 고려해 80명으로 한정합니다.

1. 탐방일시 : 2009년 11월 16일(월)~17일(화) 1박 2일
2. 교 통 편 : 전세 관광버스
3. 목 적 지 : 경북 영주시 부석사, 소수서원, 경북 울진 백암온천(숙박), 경북 청송 주왕산, 주산지
4. 출 발 지 : 한국프레스센터 앞
5. 출발시간 : 2009년 11월 16일(월) 오전 8시 정각 (오전 7시 40분 집합)

6. 도착시간 : 2009년 11월 17일(화) 오후 7시 예정
7. 상세일정

- 가. 2009년 11월 16일(월) 오전 8시 서울 출발
- 나. 11월 16일 오전 11시 소수서원 도착 ~ 11시 40분 출발, 12시 부석사 도착
- 다. 12시 ~ 오후 1시 점심
- 라. 오후 1시 ~ 2시 부석사 탐방
- 마. 2시 부석사 출발, 불영계곡 거쳐 오후 6시 백암 한화콘도 도착, 석식 후 1박
- 바. 2009년 11월 17일(화) 오전 8시 아침식사
- 사. 오전 9시 백암출발, 오전 10시40분 주왕산 주산지 도착, 11시 30분까지 탐방
- 아. 오전 11시 50분 주왕산 도착, 중식
- 자. 오후 1시 ~ 3시 주왕산 제1폭포까지 왕복 (대전사 참배 등) 탐방
- 차. 오후 3시 주왕산 출발, 중앙고속도로 이용 오후 7시 경 귀경

8. 참가신청 : 2009년 11월 11일 한 선착순 80명
9. 신청방법 : 전화02-732-4797, 팩스02-730-1270



단풍으로 물든 부석사.



주왕산의 위용.

大韓言論人會 新入회우

대한언론인회는 지난 10월 19일 본회 회의실에서 2009년 제 2차 회원자격심사위원회(위원장 안평선)를 열어 입회신청을 한 5명의 신입회원 가입을 의결했다. 다음은 새 회우의 프로필. (가나다 순)

김성환(金星煥)



- 1932년생. 동아일보 사회만평 ‘고바우 영감’ 연재(국장대우). 조선일보 국장대우편집위원 (이사대우), 문화일보 상무이사 편집위원. 소파상, 언론학회 언론상, 출판문화상 수상.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36 현대빌라 나동 101호 전화 011-9091-4539

김철진(金哲振)



- 1946년생. 국민일보 차장, 스포츠투데이 편집부장, 나우세무회계사무소 사무국장
- 서울 양천구 신정3동 푸른마을 201동 1509호 전화 019-201-7355

서옥식(徐玉植)



- 1944년생. 연합통신 외신부장, 연합뉴스 편집국장, 논설고문, 이사대우,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초빙 연구원 (현), 한국언론재단 사업 이사(현)
- 서울 강남구 일원동 615 우성7차A 11동 1101호 전화 017-229-6977

정건일(鄭健一)



- 1944년생. KBS스포츠국 부장, SBS스포츠국장, 프로축구협회 사무총장, 축구협회 부회장(현)
- 서울 서초구 서초3동 현대 ESA2차 A동 2104호 전화 02-3472-0653

한규남(韓圭南)



- 1936년생. 대한일보 기자, 중앙일보 문화센터국장, 중앙일보 편집국장대리, 편집고문, 토요신문 대표이사 발행인, 한국-러시아 협력회 상근부회장
- 서울 금천구 독산1동 1140 중앙하이츠빌A 106동 2003호 전화 02-858-7772

鄭仁永 전 명예회우 흉상제막

본회 명예회우였던 한라그룹 창업주 고 雲谷 鄭仁永 회장의 흉상이 전남 영암군 정보문화센터 광장에서 지난 9월 29일 제막됐다.(사진) 영암군은 정인영 명예회우가 지난 1996년부터 최첨단 한라중공업 삼호조선소와 한라펠푸제지, 목포신항만 등을 건설해 영암군이 지금의 서남부권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 데 큰 기여를 한 공으로 흉상을 세워 이날 제막한 것이다. 정 명예회우는 현대양행, 만도기계, 한라건설, 한라공조, 한라콘크리트, 마이스터, 한라펠푸제지, 목포신항만 등을 설립하는 등 우리나라 중공업 발전에 일생을 바쳤다. 또 본회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타계하기 전까지 대한언론인회 명예회우였다.



구종서 회우 仁川가톨릭대에 장서기증

구종서(한국문명사연구소장) 회우가 최근 강화도에 있는 인천가톨릭대에 보유중인 장서 400권을 기증했다. 구종서 회우는 이에 앞서 이석재 인천가톨릭대 총장과 장서기증협약을 맺고 평생을 바쳐 모은 1만5천권의 장서를 모두 이 대학에 기증하기로 했다. 구 회우는 현재 집필중인 ‘역사관’과 ‘문명사’ 부분 집필이 끝나는 대로 앞으로 약 5년에 걸쳐 점차적으로 모든 소유 장서를 가톨릭대 도서관에 기증하기로 했다.



구종서 회우

서관에 기증하기로 했다. 구 회우의 장서는 본인의 전공인 정치학과 그가 관심을 가져온 역사, 철학을 비롯한 인문 사회과학 분야의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1만 5천여 권이다.

인천가톨릭대 측은 3층 도서관 맨 위층의 ‘희귀자료실’에 구 회우의 기증도서를 비치하기로 하고 일반에게도 개방하기로 했다.

박기병 회우 소장도자기 박물관 기증

박기병(전 춘천 MBC 사장) 회우가 고향인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정평리에 위치한 방산자기박물관에 평생 수집해 간직해 오던 자기 57점을 기증한 일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10월 10일 관훈클럽 주최로 회원 140여명이 양구군 평화의 댐 답사길에 들른 방산자기박물관에서 박물관장이 박물관 소개를 하다 관훈클럽 회원으로 답사에 참가한 박기병 회우를 보고 박 회우의 도자기 기증 사실을 밝힘으로써 알려졌다. 박기병 회우는 인사말을 통해 젊은 시절부터 자기에 관심을 가지고 취재 출장길에 전국을 돌며 특히 방산자기를 모아 소장하던 중 마침 2006년 6월 방산자기박물관이 개관돼 강원도민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소장했던 자기를 기증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증한 도자기 앞에 선 박기병 회우 부부.

양구의 방산 일대는 양질의 백토가 나와 조선시대 이래 도자기 생산지로 유명했고 광주 분원 도요지 등 전국에 백토를 공급해 왔다.

송형목 회우 美서 재혼 달콤한 신혼생활

오래 전에 상처해 홀로 지내던 전 스포츠조선 송형목 사장이 젊은이 못지않은 연서를 주고받으면서 맺은 로맨스가 결실을 맺어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새 보금자리를 꾸미고 달콤한 신혼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실은 최근 발간된 조선일보 사우회보 ‘朝友’ 5호(2009.01. 15일자)의 1면 사진과 함께 2면에 자세한 소식에 게재돼 밝혀졌다. 朝友에 따르면 송형목 회우는 상처 후 9년을 홀로 지내다가 친지의 소개로 미국 LA의 김미혜씨와 이메일로 본인 스스로 ‘쑥스러울 만큼’이라고 표현한 달콤한 연서를 주고받은 끝에 지난 6월 미국에서 양가와 양쪽 자녀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다. 송형목 회우는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리느라 서울의 친지들에게는 미처 재혼 소식을 알리지 못하고 도둑장가를 들게 됐으며 미안해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송 회우는 결혼식 후 곧바로 한 주일간의 알래스카 크루즈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현재 미국에서 달콤한 신혼생활에 푹 빠져있다고.



미국서 결혼식을 올린 송형목 회우 부부.

이윤수 회우 별세

전 서울신문 광고국장을 역임했던 이윤수(李允秀) 회우가 10월 10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종군기자이기도 한 이 회우는 서울 삼성병원 영안실에서 12일 오전에 장례의식을 치른 뒤 경기도 이천의 국립묘지인 국립현충원(호국원)에 안장됐다. 본회는 규정에 따라 언론인장으로 모실 것을 제의했으나 유족들은 고인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고 이윤수 회우

고 이윤수 회우는 6·25 종군 기자로 58년 합동통신 정치부 차장, 61년 세계통신 편집부국장, 66~72 서울신문 광고, 판매국장, 73년 국제광고협회한국협회 초대 회장 등을 역임하고 언론계를 떠난 뒤에도 국제종합광고 대표이사를 거쳐 우성미디어 회장으로 일해 왔다.

종합 건강 검진 결과 양호



★ 김두근 회우 = 올해 77세인 김 회우는 최근 인천의 인하병원에서 종합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가 좋아 원기 백배해 있다.

천주교기념위 부위원장 위촉



★ 김 현 회우 = 천주교 재속 프란치스코 75주년 기념 위원회 부위원장에 위촉됐다. 임기는 2012년까지.

‘한글 나눔’ 강연 및 토론회



★ 남시욱(광화문 문화포럼 회장) 회우 = 10월 14일 오전 7시 반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서울대학교 이호영 교수를 초청, ‘찌아찌아족과의 한글 나눔’이라는 주제로 강연과 토론회를 벌였다.

사명대사 학술 세미나 개최



★ 박권흠(사명당 기념사업회 회장) 회우 = 10월 22일 SK허브빌딩 강당에서 사명대사 학술세미나를 열고 영정 전시회도 개최했다.

국립 중앙 박물관 명예의 전당에



★ 박용운(인간애상 이사장) 회우 = 최근 박물관 개관 100주년을 맞아 국립중앙박물관이 마련한 ‘국립중앙박물관 명예의 전당’에 첫 언론인 금관회원으로 등재됐다.



회 우 동 정

(가나다순)

박물관 명예의 전당은 박물관에 유물이나 후원금을 기증한 사람을 기리기 위해 만든 것이다. 박 회우는 2005년 국립중앙박물관이 용산으로 이전할 때까지 모두 18년간 박물관회 이사로 봉직했다.

월간 ‘춤’ 고정칼럼 기고



★ 신우식(본회 고문) 회우 = 월간 ‘춤’ 10월호부터 고정 칼럼 ‘신문살롱’을 맡아 기고하기로 했다. 이번 호에는 새 미디어법에 따라 방송국 개설 준비에 바쁜 주요 신문 등 언론계의 움직임을 소개.

‘평화 언론 포럼’ 창간



★ 안중우(평화언론포럼 회장) 회우 = 10월 5일 ‘평화언론포럼’을 4면으로 창간 발행했다. 앞으로는 8면으로 증면할 계획.

국제 선도 학회 대표이사



★ 유무정(‘사’ 입회 선도 태백원 대표) 회우 = 국제선도학회를 창립해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11월 6일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창립기념 학술대회를 연다.

잡지 읽기 속기 공모 심사위원

★ 유한준(시조시인·아동문학가) 사단



법인 한국잡지협회(회장 전용진)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상&서울시장상 등을 받고 주관하는 2009년도 「제2회 전 국민잡지읽기 수기공모」 심사위원으로 10월 26일 위촉.

‘골든 에이지 포럼’ 주제발표



★ 이광영(대한암협회 부회장) 10월 2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소의 ‘한국 골든에이지 포럼’에서 ‘고령령대는 행복한 연령대’라는 주제 발표를 했다.

문광부 영상 자료원장에 임명



★ 이병훈 회우 = 이 회우는 지난 9월 22일 문화관광부로부터 영상자료원장에 임명됐다.

위암 장지연상 시상식·축하연



★ 이종석(위암 장지연선생 기념사업회 회장) 회우 = 11월 2일 오후 7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제 21회 위암 장지연상 시상식과 축하연을 열었다. 이에 앞서 오후 2시30분부터 윤병식 인하대 학교 명예교수 사회로 15회 기념 학술

상 시상식과 축하연을 열었다. 이에 앞서 오후 2시30분부터 윤병식 인하대 학교 명예교수 사회로 15회 기념 학술

세미나도 개최했다.

‘스포츠 포럼21’ 창간 상임대표로



★ 이태영 회우 = 월간 ‘스포츠 포럼 21’을 창간해 상임대표를 맡아 스포츠 정보 교류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우리말 지킴이’로 선정돼



★ 정재도 회우 = 한글날을 맞아 우리말 살리는 겨레모임이 수여하는 ‘우리말 지킴이’로 선정됐다. 정 회우는 56년부터 한글

학회 사전편찬을 가꾸고 땅이름학회장, 한말글연구회장 등을 맡아 우리말을 갈고 가꾸는데 힘써온 공으로 선정됐다.

노년 소비자 보호연합 사무실 개소



★ 제재형(본회 명예회장) 회우 = 10월 30일 오후 6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585-26 남신빌딩 3층에 본인이 회장으로 있는

한국노년소비자보호연합 사무실을 개소했다. 전화 : 02-713-9090, 팩스 : 02-713-0181

터키군 참전 기념비 제막식



★ 지갑중(유엔한국참전국회의회장) 회우 =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한 터키군의 부산항 도착을 기념해서 제정된 ‘터키군 한국전 참전 59주년’을 맞아 건립된 ‘터키군 참전 기념비’ 제막식을 10월 16일 오전 11시 경기도 용인시에서 거행하고 한국전에서 전사한 765명의 터키군 영령을 추모했다.

한국시인 교류회 참석



★ 최금녀 회우 = 지난 9월 12일 중국 심양에서 열린 한중시인교류회에 참석, 이 회의에는 오탁번 한국시인협회장을 비롯해 김남조, 신달자 등 저명 시인 8명이 참석했다.

특별찬조

신경식, 최금녀 회우 = 9월 29일 본회를 방문해 특별찬조금으로 500,000원을 기탁



신경식 회우



최금녀 회우



김관태 회우

김관태 회우 = 지난 9월 25일 광화문 광장 문화탐방 해설을 맡아 수고해주었고 10월 회보에 ‘광화문-朱雀大路의 역사’를 기고한 김관

태 회우가 회보 원고료 50,000원을 발전기금으로 기탁

주소 변경

김한구 회우 = 서울 송파구 문정2동 올림픽 패밀리 A 221-1401 (우)138-768

남치호 회우 = 용인시 수지구 죽전1동 꽃메마을 한라프로방스2차A 301-901 (우) 448-974

민정기 회우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판교원마을 108동 210호 (우)463-410

송호빈 회우 = 서울 종로구 청운동 52-3 분흥빌라 401호 (우)110-030

이향숙 회우 = 서울 서초구 반포4동 60-5 미도 2차 A 502동 1102호 (우)137-788

위상욱 회우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진주A C동 915호 (우)150-894

장두원(아시아 투데이 부회장 겸 논설주간) 회우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988 한운마을 신동아A 607-601 (우)463-440

전화번호 변경

남치호 회우 = 집 전화 031-897-4476

민정기 회우 = 010-5255-6205, 집 전화 031-8016-0567

박채규 회우 = 010-7409-3441

백일진 회우 = 010-6417-5115

장두원 회우 = 010-5341-7333

회우 경조사

장종덕 회우 모친상, 신동철(본회 부회장) 회우 장모상 = 10월 13일 밤 별세, 빈소 서울 삼성병원 영안실 1호, 발인 10월 16일 오전, 장지 강원도 강릉시 연곡.

원로회우등에 추석선물전달

대한언론인회는 추석을 맞아 지난 9월 말 米壽 이상의 원로회우를 비롯한 편집위원 등 모두 95명의 회우들에게 참치 캔과 식용유 선물 세트를 전달했다.

kdb
KDB Financial Group

금융강국의 새 길을 여는
위대한 하모니

2009년 10월 28일
산은금융그룹 출범

대한민국의 산업을 키워온 **산업은행**, 투자의 새 길을 열어온 **대우증권**,
기업에 큰 힘을 더해 온 **산은캐피탈**, 국민의 자산을 키워온 **산은자산운용**, **한국인프라자산운용**!
이제 함께 모여 글로벌 투자은행 그룹을 향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산업은행 대우증권 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 한국인프라자산운용

산은금융그룹 kdb



'LG와 함께하는 사랑의 다문화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법무부가 후원합니다



다문화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 LG는 그들의 얼굴이 아니라 그들의 가능성을 봅니다

두 나라 언어를 사용하고 두 나라 문화를 이해하고
두 나라를 모두 사랑하는 아이들 -

LG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서
그들만이 갖고 있는 남다른 가능성을 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키워 그들이 우리 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LG와 함께하는 사랑의 다문화 학교'를 시작합니다

카이스트의 체계적인 과학교육과
한국외국어대학의 이중언어교육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소중한 인재로 커나가도록 돕겠습니다
다른 모습 같은 사랑, LG가 함께합니다

LG는 사랑입니다

